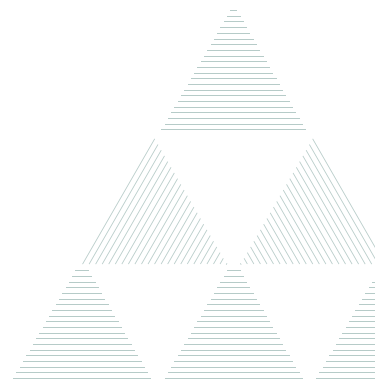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정의와 개념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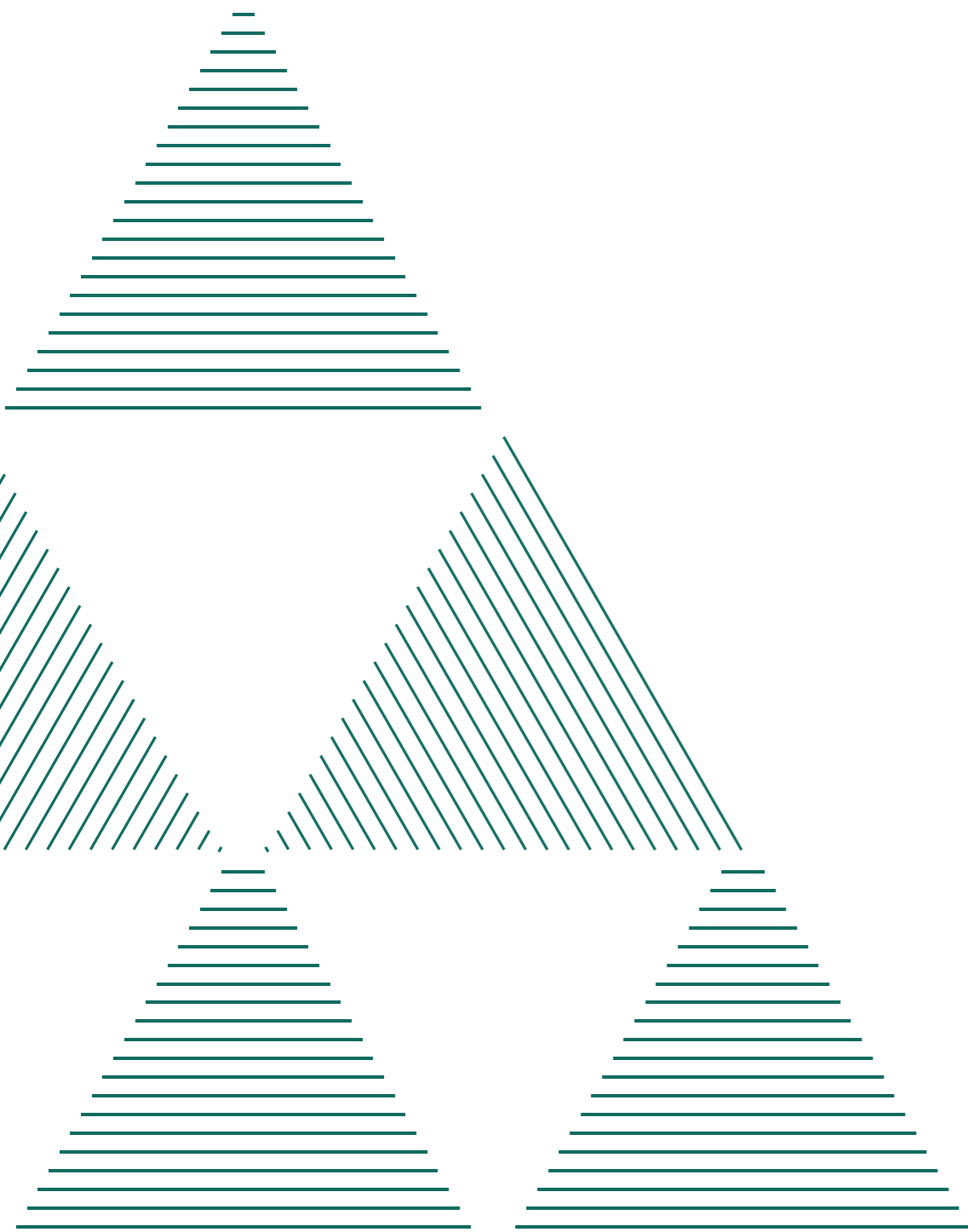
이론연구 결과보고서 | 2023.12.





목 차

I. 서론	05
II. 문헌연구	11
III. 전문가 회의	25
IV. 정의 초안과 논평	49
V. 더 나아가며	57





I

서론



I 서론

사람과 유산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상호 작용한다. 사람과 유산 간 상호작용에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표현, 지역 공동체 정체성의 발전, 전통 지식과 기술의 발전, 지역 공동체의 안위와 삶의 질 향상이 포함된다. (Kong et al., 2022).

인류 사회에서 유산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유산 해석과 설명은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유산 가치와 의미를 식별하고 창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유산 과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유산 가치를 형성하고 공동체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산 해석과 설명에서의 지역 공동체 참여는 유산의 의미와 이야기를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발전에도 기여한다. (Court, 2022).

그러나 유산 해석과 설명 간 관계는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Silberman, 2022). 국가적, 국제적 유산 정책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모호한 해석과 설명에 대한 개념은 실제 정책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Kang & Kim, 2022). 결론적으로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은 사람들이 용어를 어떻게 인지하고 사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석과 설명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유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유산과 지역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계획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1. '유산 해석'과 '유산 설명'의 개념 및 용어 정의
- ▶ 2. 학문적, 정책적, 실무적 수준에서 두 개념 간 관계 확립
- ▶ 3. 유산 해석과 설명 이행에 대한 기본 원칙 수립

이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 1. 유산 해석과 설명 간 모호함을 재검토하여 두 개념 간 명확성을 확립하고 학문적, 정책적, 실무적 수준에서 두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 ▶ 2. 두 개념 간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산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하고 이를 더 많은 유산 공동체와 공유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식을 제고한다.
- ▶ 3.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 실제 현장에서 해석과 설명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22년에 시작했으며 현재는 연구의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의 중기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 1) 개념 정의 연구
- 2) 기본 원칙 연구
- 3) 지침 수립

이 연구 과정은 WHIPIC의 다른 연구 영역인 정책 연구, 주제별 연구, 지역 연구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22년, 첫 번째 연구 단계에서는 '유산 해석'과 '유산 설명'의 개념적 범위에 중점을 두었다. 첫 번째 연구 단계의 결과물로 한 문단의 '유산 해석' 최종 정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 새로운 해석 정의는 문헌 연구, 전문가 회의, 설문조사 보고서, 컨퍼런스를 통해 작성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 새로운 정의를 구상하기 위해 다음 질문들을 논의하였다 (Kang & Kim, 2022):

- ▶ 1. 유산 해석과 설명은 무엇인가? 유산 해석과 설명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 ▶ 2. 유산 해석과 설명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 3. 유산 해석과 설명은 유산 보존관리 과정 중 어느 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연구 단계 결과에 따르면, '유산 해석'의 초기 개념과 정의는 자연 유산에 대한 현장 해석과 교육에서 비롯되었으며, 2008년 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 채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산 해석과 설명은 다양한 가치와 문화 다양성의 인정 속에서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유산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 간 다른 이해와 접근방식으로 인해 최근에 유산에 대한 갈등과 이슈가 발생하였다. 이는 유산 해석이 단순한 교육적 활동을 넘어 유산에 대한 '의미 형성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유산 해석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킨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유산 해석을 '소통, 참여 및 경험을 통한 의미 형성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합의점에 이르렀다. 비슷한 맥락에서 컨퍼런스에서도 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거버넌스, 평가 체계, 윤리적 지침과 실용적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산 해석은 소통, 참여 및 경험을 통한 의미 형성 과정이다.’

첫 단계의 연구 프로젝트에 이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산 설명”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는 ‘유산 설명’의 정의와 ‘유산 해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주로 다룰 것이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유산 해석과 개념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유산 해석과 설명은 다른 개념인가? 이 두 용어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며, 두 용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유산 해석과 설명 각각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
- 유산 해석과 설명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유산 해석과 설명이 유산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올해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 1) 문헌 연구
- 2) 전문가 회의
- 3) 보고서 발행

올해 보고서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회의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전문가 회의에서 얻은 의견과 통찰을 제시한다. 더불어, 논의 주체를 유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유산 공동체로 폭넓게 확대하여, 추가적인 담론을 촉진한다.

보고서는 1장부터 5장까지 구성되어 있다. 2장에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과 용어에 대한 문헌 연구 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유산 업계 종사자와 연구자가 제시한 유산 해석과 설명의 이론과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유산 분야에서 해석과 설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올해 전문가 회의의 진행 상황을 다룬 3장에서는 각 회의의 주요 논의 주제, 의제, 방법론과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또한 ‘유산 설명’의 정의 초안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제시한다. 4장에는 전문가 회의가 제안한 유산 설명 정의 초안과 전문가 회의 참석자가 작성한 논평과 의견이 기술되어 있다. 5장은 연구 결론과 향후 몇 년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에는 전문가 회의 참석자가 제출한 의견서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각 장에 전문가 회의의

모든 세부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각 장의 내용은 회의 의제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모든 전문가 의견을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일부 타협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하지만 개별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과 의견도 추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부록에는 채택되지 못한 중요한 고려사항을 담은 전문가 의견서가 수록되어 있다.

유산과 유산 관련 개념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양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후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의 토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WHIPIC의 의무에 따라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개념과 방법은 유형이나 무형, 장소나 물건 등 어떤 다른 유산에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프로젝트는 특정한 의무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결과는 세계유산협약이나 세계유산 현장의 관리를 넘어서 유산 분야 전반에 보다 넓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논의가 전체 유산 세계를 반영하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 참고 문헌

Court, S. (2022). Exploring the Benefits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Heritage Interpretation. In N. Silberman (Ed.), World Heritage: 50 Year and Moving Forward (1st ed., Vol. 1, pp. 192-221). UNESCO WHIPIC.

Kang, S., & Kim, A. (2022). UNESCO WHIPIC: Definitions and Concepts of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2022 - Theoretical Research Report.

Kong, H., Araujo, A. L., Gandara Vasquez, M., Magar, V., Orbasli, A., Jigyasu, R., Stone, P., Ang, M. C., Lee, S., Wijesuriya, G., Santana Quintero, M., Kim, Y., Rico, T., Kim, N., Kim, A., Leitao, L., & Kang, S. (2022). Proceeding of 2022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Presentation Forum (H. Kong, Ed.). UNESCO WHIPIC.

Silberman, N. (2022). What is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n N. Silberman (Ed.), World Heritage : 50 Years and Moving Forward (1st ed., Vol. 1, pp. 16-37). UNESCO WHIPIC.



II

— 문화연구



II 문헌연구

◆ 1. 서론

이 장에서는 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다룬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문헌들을 토대로, 지금까지 학계 및 유산해석 전문 기관들이 유산 해석과 설명의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해석과 설명의 용어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세계유산협약 및 이행지침, ICOMOS와 ICOM 등 주요 국제기구의 헌장과 선언문 등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산 해석과 설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서들 및 연구성과들을 분석하여, 유산 해석과 설명이 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넘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현행 정의와 실제 유산 해석의 역할 간에 어떠한 간극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본 연구의 목적인 새로운 용어 및 개념 정립이 유산을 해석 및 설명하고자 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유산 해석 및 설명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제시하고자 한다.

◆ 2. “유산 해석”과 “유산 설명”의 현행 정의

유산 해석(Heritage interpretation) 과 유산 설명(Heritage presentation)에 대한 용어는 유산 현장과 학계에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두 개념에 대한 이해와 용어 사용의 양상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서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어떤 해석가들은 두 용어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문적 모호성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버만은 두 용어는 서로 다른 뿌리에서 시작되어 사용했기 때문에, 두 용어 사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Silberman, 2009, 2022) 로건 역시 해석과 설명의 개념은 유산 관리의 측면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상호 대체 가능한 용어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였다.(Logan, 2022a, 2022b) 이러한 측면에서 두 용어의 구분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산 해석과 설명 용어들이 어떻게 학자 및 해석가들에 의해서 정의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산 해석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연구자이자 해석가는 프리먼 톨든이다. 널리 알려진 저서 “우리의 유산을 해석하기(1957)”에서 그가 제시한 정의는 지금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인용되고 있다. 톨든 이후에도 많은 학자와 해석가들, 그리고 유산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표1과 표2에서와 같이 유산 해석을 정의해왔다.

● 표 1. 유산 해석 학자들의 유산 해석의 정의 ●

번호	키워드 분류	저자	정의	연도
1	교육	Tilden	단순한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객체, 직접 체험 및 예술 매체를 통해 의미와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교육 활동	1972
2	교육	Beck and Cable	해석은 우리 문화적, 자연적 자원에 대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교육 활동이다. 이를 통해 강연, 안내 투어, 전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역사적 장소와 자연의 경이성에 대한 이해, 감상 및 보존을 증진한다.	1998
3	소통	Howard	‘해석’은 사람들에게 유산을 전달하는 다양한 수단을 포괄한다. 이는 가이드와 인간 중개자를 활용한 실시간 해석과 디자인을 활용한 해석을 모두 포함한다.	1998
4	대중 담론	Silberman	가이드 투어를 따르는 대신, 공공 공간에서의 공공 토론은 집단 정체성, 사회적 규범, 유산의 무게에서 개인의 자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통의 형태로 새로운 해석적 패러다임으로 제시된다.	2012
5	소통	Moscardo	유산 해석은 관광 목적지의 자연 및 유산의 측면을 제시하고 설명하기 위한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안내 투어, 브로셔, 표지판 및 전시물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2014
6	교육	Nowachi	유산 해석은 유산 장소와 사물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연 및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활동이다.	2021
7	소통	McKew	해석은 우리가 역사적 장소와 소장품에 방문객이나 관객을 연결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유산에 관한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2022

● 표 2. 유산 해석 기관들의 유산 정의 ●

키워드 분류	저자	정의	연도	
1	교육	ICOMOS	해석은 유산 사이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칭한다. 이는 출판물, 전자 출판물, 공개 강연, 현장과 연계된 현장 밖의 설치물,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 활동 및 해석 과정 자체의 지속적인 연구, 교육, 평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008
2	소통	ICOMOS Australia	1.17 해석은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을 제시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해석은 이해를 증진한다. 해석은 장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인식한다.	2013
3	대중 담론	ICOM	중재는 '해석'과 동일한 일반적인 박물관 의미를 갖는 프랑스어 'médiation'의 번역으로, 박물관의 공중과 박물관이 관중에게 보여주는 내용 사이의 중개를 의미한다.	2010
4	소통	Association for Heritage Interpretation	해석은 사람들이 사이트, 소장품 또는 이벤트에 대해 이해하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이다.	n.d.
5	소통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해석은 "관객의 흥미와 자원의 내재된 의미 사이의 감정적 및 지적 연결을 형성하는 미션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이다.	n.d.
6	교육, 소통	Interpret Europe	유산 해석은 여가 중인 사람들에게 장소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비형식적 학습에 특화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는 자연 보호구역, 역사적인 장소 또는 박물관과 같은 유산 현장에서 방문객과의 연결을 확립한다.	n.d.
7	소통	Interpret Europe	문화 및 자연 유산의 의미와 관계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도, 사물, 유물, 풍경 또는 장소와의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1976

키워드 분류	저자	정의	연도	
8	소통	Interpretation Australia	해석은 장소, 자연 세계 또는 역사적 장소에 대한 아이디어, 정보 및 지식을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좋은 해석은 방문객을 매료시키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n.d
9	소통	InterpatMx	유산의 해석은 쾌적하고 관련성 있으며 의미 있는 자연 및 유산의 학습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이는 유산 보존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자신과 환경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돕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비판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페인어로부터 번역됨]	2020
10	교육	Global Alliance of Heritage Interpretation	해석은 단순히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객체, 직접 체험 및 예술 매체를 통해 의미와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교육 활동이다.	2019
11	소통	The National Lottery Heritage Fund	"우리가 유산에 대한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다른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보를 액세스 가능하고 관련성 있으며 매력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2023
12	소통	Museums & Galleries Scotland	박물관 해석은 우리의 소장품 및 그들의 이야기와 의미를 우리의 관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효과적인 해석은 개인과 지역 사회가 소장품과의 경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2023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학자와 기관들이 유산 해석이 무엇인지 정의해왔다. 기존 문헌에 나타난 정의들을 분석하면 유산 해석이 주로 교육적 활동, 소통의 과정이나 활동, 그리고 드물게 대중의 담론 형성으로 인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유산 해석이 교육 및 소통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유산 해석은 유산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정치성과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유산에 대해 유산 해석이 갖는 기능과 역할들도 교육과 소통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도 하다. 유산 해석은 유산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를 장려하고(Brochu & Merriman, 2022; Court, 2022; Herguner, 2015),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Kong et al., 2022; Nowacki, 2021),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며(Crabbe et al., 2022; Gardner, 2004; Logan, 2012, 2022a), 전통적 기술과 지식을 보호하고(Mananghaya, 2012), 유산의 정체성과 브랜딩 및 경제적 이익(Howard, 2023)을 증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학계와 현장에서는 “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을 갖는 “유산 해석” 용어를 상당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산 설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확립되어 제시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것은 “Presentation”이라는 단어가 갖는 명확성 때문일 수 있다. 유산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유산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보여주는” 행위의 핵심은 변하지 않고 비교적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산 해석이 단방향의 교육적 행위에서 소통의 과정으로, 더 나아가 담론의 일환 등으로 발전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 표 3. 유산 설명 정의 ●

키워드 분류	저자	정의	연도
1 소통	Dolák and Šobánková	이것은 박물관 자료의 지식과 가치를 공유하거나 그들의 문서화 시스템을 통해 수령자의 지식과 가치에 변화를 유발하는 박물관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이다.	2018
2 소통	ICOMOS	프레젠테이션은 유산지에서 해석적 내용을 주의 깊게 계획된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석적 정보의 배열, 물리적 접근 및 해석적 인프라를 통해 전달된다. 정보 패널, 박물관형 디스플레이, 공식적인 도보 관광, 강연 및 안내 관광, 그리고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와 같은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2008

◆ 3. 국제적 차원에서의 유산 해석과 설명

기술의 발전에 대비하고 해석과 설명의 구분을 시도하기 위하여 이코모스 해석설명소위원회와 에나메 센터는 2008년 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국제현장을 제정하였다. 이 현장에서는 유산 해석과 유산 설명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유산 해석은 광의의 인식제고 활동으로, 유산 설명은 충실한 계획을 기반으로 한 해석의 소통과정으로 차별성을 두고 있다.(ICOMOS, 2008) 그러나 2008년 이코모스 현장은 정의와 함께 일부 중첩되는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해석과 설명의 구분이 모호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유산 해석의 예시로서 인쇄 및 전자 출판물,

교육 프로그램, 현장 또는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장 밖의 설치물 등을 제시하고 있고, 유산 설명의 예시로 정보성 안내판, 강의 및 가이드 투어, 멀티미디어 앱과 웹사이트 등을 제시하고 있어, 해석과 설명이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ICOMOS, 2008)

2008년 이코모스 현장의 원칙 부분에서는 해석과 설명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포용성”을 다루고 있는데, 다방면의 전문가와 현장관리자, 해석가와 관광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까지도 유산 해석과 설명에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ICOMOS, 2008) 이 현장의 원칙에 따르면 전통적인 권리와 책임, 소유자 및 공동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해석과 설명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와 기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ICOMOS, 2008)

호주 이코모스에서 채택한 바라현장은 1979년 처음 채택되었고, 이후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2013년에 수정 채택되었다. 바라 현장은 오히려 해석은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모든 방법으로 정의하여 해석과 설명을 성격이 같은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바라현장의 해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석’에 관한 내용이다. 호주 이코모스는 바라현장 해설을 통해 유산 해석이 유산의 문화적 중요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보존원칙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ICOMOS Australia, 2013) 특히, 해설에서 제시한 해석에 관련된 이슈들 가운데에서 가치충돌의 문제, 강의식 접근 방법, 적절한 계획 및 보존관리계획에의 통합 등은 여전히 유산 해석 분야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에 개정된 국제박물관협회의 박물관 정의에서도 유산 해석을 박물관의 필수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고, 윤리적, 전문적인 소통과 공동체의 참여를 동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ICOM, 2022) 이와 같이, 국제적 차원에서 기존의 유산 해석과 설명을 이끌어왔던 주요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동체의 참여를 해석과 설명의 중요한 필수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01 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현장(2008)

(p.2) 해석은 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말한다. 이는 인쇄물과 전자 출판물, 공개 강연, 현장 및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장 밖의 설치물,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 활동, 그리고 해석 과정 자체의 지속적인 연구, 교육, 평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설명은 유산에서 해석적 내용을 주의 깊게 계획된 통로, 물리적 접근 및 해석적 인프라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이는 정보 패널, 박물관 형식의 전시물, 형식화된 도보 관광, 강연 및 안내 투어, 그리고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과 웹사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p.7) 원칙 6 포용성

유산의 해석과 설명은 유산 전문가, 지역 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미 있는 협력의 결과여야 한다.

1. 학자, 지역 주민, 보존 전문가, 정부 기관, 현장 관리자 및 해설가, 관광업자 및 기타 전문가들의 다학제적 전문성은 해석 및 전시 프로그램의 구성에 통합되어야 한다.

02 버라 현장 [문화적 중요성의 장소를 위한 호주 이코모스 현장] (2013)

(p.3) 1.17 해석은 장소의 문화적 의미를 제시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비고] 해석은 장소의 구조물 처리(예: 유지, 복원, 재건), 장소에서의 사용 및 활동, 그리고 설명 자료의 도입을 조합할 수 있다.

03 버라 현장 해설집 - 해석 (2013)

(p.3) 해석은 보존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다. 해석은 버라 현장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보존 원칙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문화적 의미를 지닌 장소는 의미의 적절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좋은 관리를 통해 가장 잘 보존될 수 있다.

해석 실무는 전문 분야이며 특정 용어와 개념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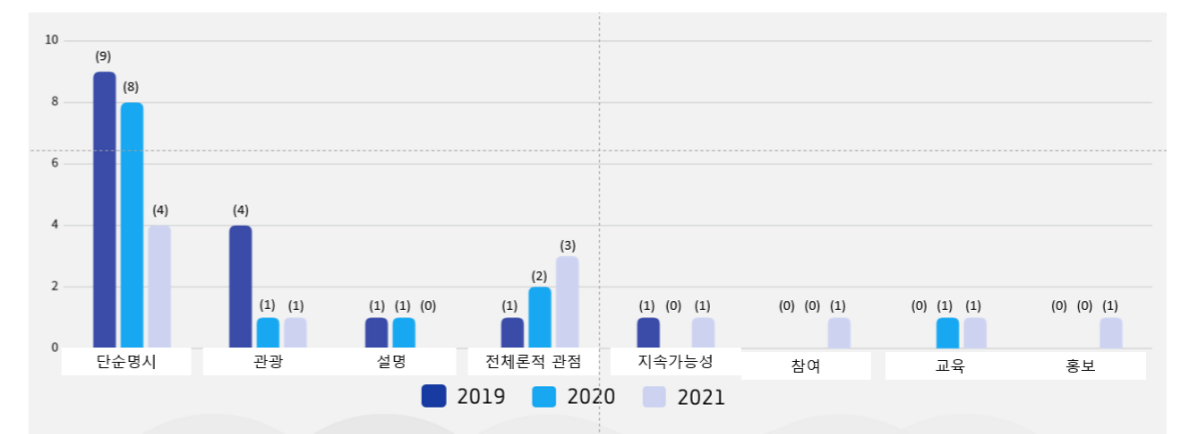
04 국제 박물관협회 “박물관 정의” (2022)

박물관은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적이고 영구적인 기관으로, 유형과 무형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해석 및 전시한다. 대중에게 개방되며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한다. 박물관은 윤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며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교육, 즐거움, 반성 및 지식 공유 경험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많은 해석 정의들과 문서에서 대부분 유산 해석을 중심으로 다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설명은 오히려 박물관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여겨졌으며, 기술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설명이 장소를 기반으로 한 유산 분야에 등장하게 된 것은 유네스코로부터 기인하였다. 실버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기초를 마련했던 1950년대의 유네스코 전문가 위원회에서 “보존 및 설명 기법에 대한 정보 공유”를 주요 의무로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으로 이어지면서 설명(Presentation)이 당사국의 주요한 의무로 이어졌음을 주장하였다.(Silberman, 2022) 국제적 차원에서 공식 문서가 채택되는 과정을 통해 유산 설명은

정책적인 행위이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로 제시되었다.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은 당사국의 주된 의무로 유산의 보호(Protection), 보존(Conservation)과 함께 설명(Presentation)을 제시하고 있으며, 식별(Identification), 활용(Rehabilitation), 관리(Management)와는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UNESCO, 1972)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이하 ‘이행지침’)에서는 당사국이 설명과 홍보(promotion)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UNESCO, 2023) 다시 말해, 세계유산협약과 그 이행지침에서는 설명(Presentation)을 정보 전달의 수단 또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권한을 가진 당사국의 역할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유산협약이 1972년에 채택되었고 “설명”의 의무가 이미 1950년대에 제시된 개념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가장 큰 변화는 방법론의 진화일 것이다. 유산 해석과 설명의 방법론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혁신적이고 전례없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정보 “전달”과 “경험”의 양상에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가져왔다.(Slack, 2021; Staiff, 2016) 첫째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간의 여러가지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순히 글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림과 영상, 촉각이나 후각 등의 감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등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여 유산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 이전에는 주어진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정보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설명의 의무를 지닌 세계유산 당사국에게 주어진 권한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해석과 설명의 시대에 박차를 가했으며, 유산의 해석과 설명으로 인한 다양한 정보들이 충돌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했다.



● 그림 1. 연도별 “해석” 용어 사용 동향 차트 ●

이러한 변화는 세계유산협약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지난 2019년부터 3개년 간의 “해석” 용어 사용 동향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결정문

내에서도 “해석”에 해당하는 내용이 방문자 안내센터에서의 전시나 관광 해설사의 설명, 자료 또는 사료를 기반으로 한 학술 연구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UNESCO WHIPIC Education and Networking Office, 2022) 또한 “해석 전략”이 유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하나의 요소로 권고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결정문에서는 “전체론적 해석”, “완전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포용적 해석 전략에 대한 권고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UNESCO WHIPIC Education and Networking Office, 2022) 교육이나 홍보, 전시나 해설뿐만 아니라 해당 유산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체 참여의 증진, 가치 다양성의 인정, 더 나아가 유산 가치에 대한 다층적 이해와 견고한 연결성 확립을 위해 유산 해석과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최근에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중심축이 교육이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유산이 왜 가치가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파악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두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유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가치들을 균형있게 설명하여 서로 다른 공동체의 이해와 관점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본다. 유산이 왜 가치 있는지 파악하고 의미를 형성하고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유산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여 해석과 설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 4. 소결

정의가 교육이나 소통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과는 상반되게, 유산 해석의 역할과 기능은 이렇게도 다양하며, 우리가 직면한 유산 현실과 현장에 깊숙히 연관되어 있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와 같은 큰 이슈에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매일 유산에서 실천하고 있는 일상관리의 사소한 판단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유산 해석은 실제로 그 정의보다 훨씬 폭넓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이자 과정이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유산 설명이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유산을 다루는 하나의 정책용어로 활용되면서, 유산 해석과 설명의 서로 겹쳤던 행위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산 사회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다양한 공동체와 여러 쉼의 시간적 층위가 존재하는 장소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어떤 가치를 어떻게 보여주고 전달하며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과 유산의 단단한 연결성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다. 이러한 유산 사회의 중대한 과제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적절하고 구체화된 개념과 방법론의 정립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유산과 사람 간, 그리고 더 넓게는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유산을 통해 형성해 나간다는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의 다음 장은 지난 2022년의 유산 해석 정의 초안을 바탕으로 “유산 설명”의 새로운 정의를 정립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로 이어진다.

☞ 참고 문헌

Brochu, L., & Merriman, T. (2022). Put the HEART Back in Your Community:Community Experience Planning. Heartfelt Publications.

Court,S.(2022). Exploring the Benefits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Heritage Interpretation. In N. Silberman (Ed.), World Heritage : 50 Years and Moving Forward (pp. 192-221). UNESCO WHIPIC.

Crabbe, K., Husok, O., & Kraehe, A. M. (2022). Youth Creative Agency Toward Art Museum Futurity: Re-imagining Inclusive Practices Through 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Journal of Museum Education, 47(1), 59-70. <https://doi.org/10.1080/10598650.2021.1969857>

Herguner, B. (2015). The Pursuit of Responsive Museum Governance: Community Engagement in Turkish Public Museum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8(11), 782-795. <https://doi.org/10.1080/01900692.2014.979201>

Howard, P. (2023). Heritage : Management, Interpretation, Identity. Continuum.

ICOM. (2022).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Museum Defi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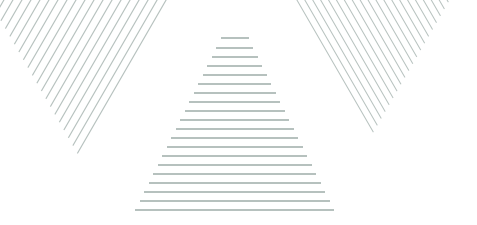
ICOMOS. (2008).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ICOMOS Australia. (2013). The Burra Charter Practice Note [Interpretation] .

Kong, H., Court, S., Alberth, P., Ang, M. C., Boccardi, G., Labadi, S., Larsen, P., Orbasli, A., Siriphatthanakun, H., Stefano, M., Taruvinga, P., Wijesuriya, G., & Yildirim, E. (2022). Research o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nterpretation Policy-Heritage Interpre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ogan, W. (2012). Cultural diversity, cultural heritage and human rights: towards heritage management as human rights-based cultural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8(3), 231-244. <https://doi.org/10.1080/13527258.2011.637573>

Logan, W. (2022a). Heritage Interpretation, conflict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global issues in microcosm.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2(1), 5-18.



Logan, W. (2022b). Interpreting World Heritage Cultural Sites to Meet UNESCO Principles: New Responsibilities at the Workface. In N. Silberman (Ed.), *World Heritage:50 Years and Moving Forward* (1st ed., Vol. 1, pp. 38-71). UNESCO WHIPIC.

Mananghaya, J. (2012). Living cultural landscape: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p. 178-187). <https://doi.org/10.1017/CBO9781139567657.020>

Nowacki, M. (2021). Heritage interpret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ustainability (Switzerland)*, 13(8). <https://doi.org/10.3390/su13084383>

Silberman, N. (2009). Process Not Product: The ICOMOS Ename Charter (2008) and the Practice of Heritage Stewardship.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4693472>

Silberman, N. (2022). What is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n N. Silberman (Ed.), *World Heritage : 50 Years and Moving Forward* (1st ed., Vol. 1, pp. 16-37). UNESCO WHI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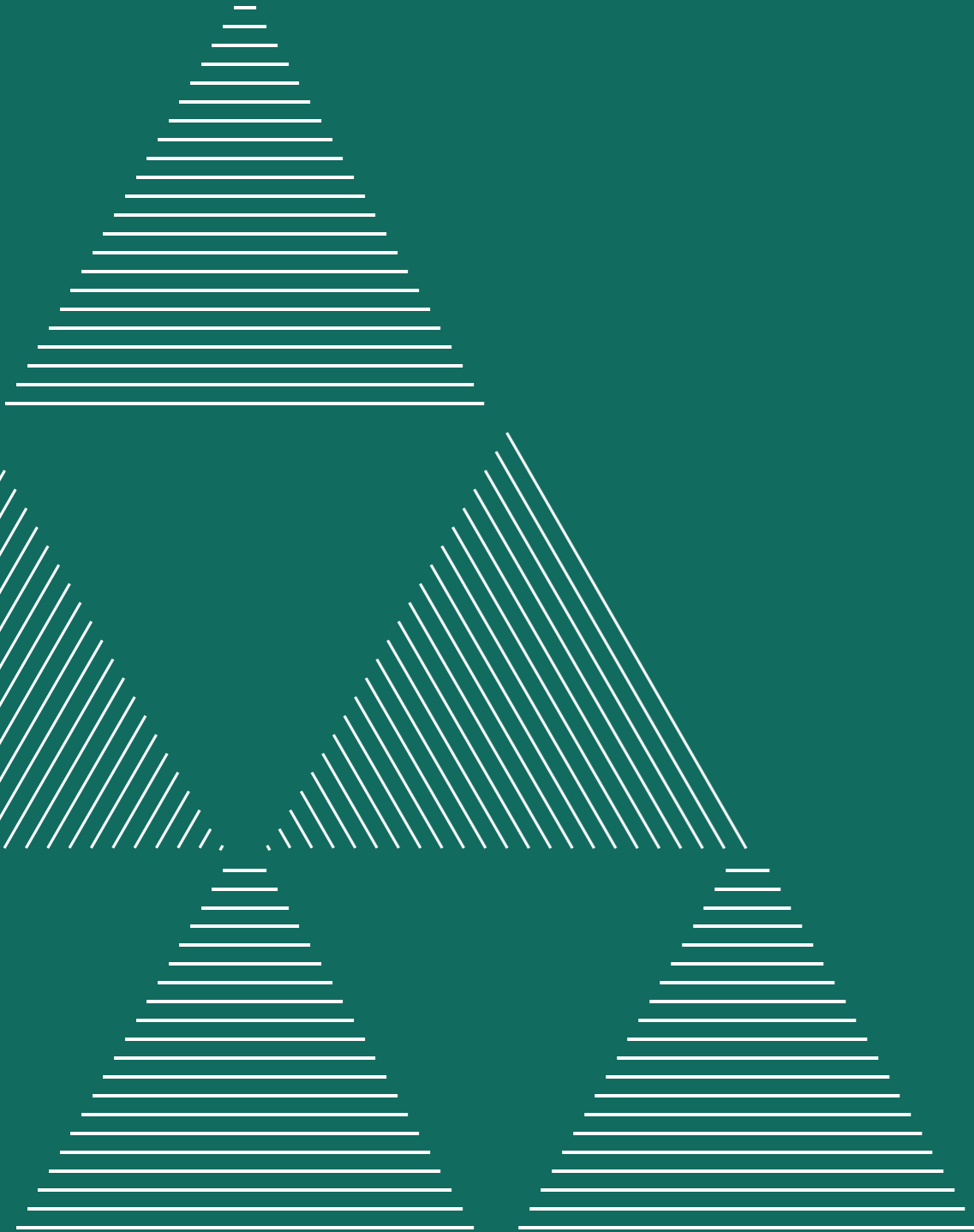
Slack, S. (2021). *Interpreting Heritage : A Guide to Planning and Practice*. Routledge.

Staiff, R. (2016). *Re-imagining Heritage Interpretation - Enhancing the Past-Future*. Routledge.

UNESCO.(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https://whc.unesco.org/en/conventiontext/>.

UNESCO.(2023).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UNESCO WHIPIC Education and Networking Office. (2022). "Analysis on the Uses of Term "Interpretation" in Decisions of World Heritage Committee from 2019 to 2021 [Internal WHIPIC report: unpublished].



III

전문가 회의



III 전문가 회의

◆ 1. 소개

WHIPIC의 이론 연구는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정의를 탐구하고, 기본 원칙을 수립하며 실용적인 지침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장기 계획된 연구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연구 프로젝트의 두 번째 해는 이전 연도에서 사용된 "유산 해석"의 개념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유산 설명"의 새로운 정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에는 이 새로운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정의를 기반으로 원칙과 지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회의는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의견과 시각들을 공유하고 해석과 설명을 실제 이행하는 현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전문가 회의(이하 '전문가 회의')는 연구 첫 해의 전문가그룹 덕분에 두 번째 해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 2023년 WHIPIC 이론 연구 전문가 회의에서는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 초안에 활용된 개념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탐구하였으며, 세계유산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산 설명'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유산 해석과 설명의 이행을 위한 원칙과 지침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안하였다.

▶ 목적

- 1) '유산 설명'을 정의하고 관련 개념 논의
- 2) '유산 해석' 정의에 활용된 개념 논의
- 3) 유산 해석과 설명에 관한 원칙 수립에 활용할 주요 아이디어 및 키워드 논의

◆ 2. 회의 과정

▶ 전문가 회의 참석자 목록

	이름	직책/소속
참석자	도미닉 부샤르	잉글리쉬 헤리티지 교육과 해석 국장
	닐 카말 차파가인	아마다바드 대학 유산관리 센터 교수
	최재현	건국대학교 교수
	사라 코트	유산 컨설턴트
	마누엘 간다라	멕시코 국립유산보존대학교 교수 InterpatMx 회장
	마리오 산타나-퀸테로	캐나다 칼튼 대학 교수
	닐 실버만	코헤릿 법인 매니징 파트너,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 암허스트 인류학 교수
추가 참석자	밍치양	조지타운 세계유산본부 총괄매니저
	알비노 조펠라	아프리카 세계유산 기금(AWHF) 사무총장
	트리니다드 리코	럿거스 대학 교수

▶ 전문가 회의의 과제

전문가 회의의 과제는 각 의제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구두와 서면 형식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회의를 준비하고 WHIPIC에서 제공한 질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부록 참고) 회의는 일반적으로 안건에 제공된 질문들을 따라 진행되었고, 회의 중에 발생하는 새로운 논의들도 수용하였다. 그 결과, 제출된 의견서에는 각 전문가가 회의 이후 더 발전시킨 의견이 기술되어 있다. 모든 의견서는 서로 공유되어 다른 참석자에 의해 검토되었다. 전문가 회의 과제의 목적은 다음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 1) '유산 설명'의 정의와 유산 해석 및 설명과 관련된 개념에 대하여 합의한다.
- 2)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용적인 논의를 촉진한다. 특히, 이론적인 기초에 중점을 둔다.
- 3) 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에서 다양한 학제간 유산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세부 계획

전문가 회의는 표준 시간대 별로 두 개 그룹(그룹 A와 그룹 B)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그룹 별로 따로 진행된 회의도 있었고, 각 그룹의 의견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두 그룹이 함께 참여한 회의도 있었다. 첫 모임을 포함한 다섯 번의 정기 회의 이후, 올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해 추가적으로 두 차례의 회의가 더 진행되었다.

회의 일정

	그룹 A	그룹 B
사전 모임	3월 30일, 8AM-9AM (KST)	3월 30일, 5PM-6PM(KST)
1차 회의	4월 27일, 8AM-10AM (KST)	4월 27일, 5PM-7PM(KST)
2차 회의	5월 25일, 6AM-8AM(KST)	5월 25일, 5PM-7PM(KST)
3차 회의	6월 22일, 8AM-10AM (KST)	6월 22일, 5PM-7PM(KST)
4차 회의	7월 20일, 9PM-11PM (KST)	
5차 회의 (추가 진행)	10월 12일, 9PM-11PM(KST)	
6차 회의 (추가 진행)	11월 7일, 9PM-11PM(KST)	

3. 의제 및 논의

사전 모임

01 의제

- 전문가 회의의 과제와 연구 프로젝트 소개
 - 연구 프로젝트 소개
 - 연구 첫 해에 대한 개요 (2022)
 - 연구 두번째 해에 대한 계획 (2023)
 - 전문가 회의의 운영 방식
 - 팀 및 참석자 소개

전문가 회의 사전 모임은 참석자들이 연구 프로젝트의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과제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서로를 소개하기 위한 세션이었다. 2022년 전문가 회의부터 이어서 참석하는 구성원들이 많았지만,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공통된 인식과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의였다. 사전 모임에서는 WHIPIC의 이론 연구 영역에 대한 중기적 목표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계획과 전문가 회의의 목적 및 기대되는 결과가 소개되었다.

1차 연구: 개념 및 정의

-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정의와 개념은 무엇인가?
- 포용적인 유산 해석은 무엇이며, 세계유산에 적합한 접근 방식인가?
- 유산 해석과 설명의 과정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2022 - 2023

2차 연구: 원칙 및 지침

- 특히 세계유산에서의 유산 해석과 설명 원칙은 무엇인가?
- 유산 해석과 설명을 유산 관리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 세계유산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2024 - 2025

3차 연구: 현장 적용

-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가장 적합한 사례는 무엇인가?
- 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원칙과 지침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요?

2026 -

● 그림 2. WHIPIC의 이론연구 중장기 주제 ●

1차 회의

01 의제

- Warm-up
 - 유산 해석과 설명의 좋은 사례
 - 유산 해석과 설명의 나쁜 사례
- ‘유산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가?
- 유산 설명을 하는 사람과 유산 설명을 받거나 경험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하는가?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두 역할을 적절하게 구분할 용어는 무엇인가?
- 모든 유산 설명이 옳고 좋으며 바람직하고 받아들여질 만 한가?
- 공개될 수 있는 ‘공식적’ 유산 설명과 ‘개인적’ 유산 설명 간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Warm-up: 사례 공유

1차 회의 전, 전문가들은 유산 해석과 설명의 좋은/나쁜 사례를 준비하고, 위 여섯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도록 안내 받았다. 1차 회의에서 각 참석자는 6분 동안 준비한 사례와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본인 생각을 소개하고, 유산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전문가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유산 해석과 설명의 좋은/나쁜 사례가 동일한 유산에 공존한다고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구분하는 대신 참석자들은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유산 해석과 설명의 본질, 그리고 유산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려고 중점을 두었다.

● 표 4. 회의에서 소개된 유산 목록 ●

유산의 명칭(세계유산인 경우, 등재된 정식 명칭)	소재국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 나치 독일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1940-1945)	폴란드
앙코르 와트	캄보디아
빅 핏 국립 탄광 박물관(블레나본 산업 경관)	캄보디아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미국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원폭 돔)	일본
로마 역사 지구 - 바티칸 시국의 유산들과 산 파올로 푸오리 레 무라 대성전	바티칸시국/이탈리아
몰라카와 조지타운: 몰라카 해협역의 역사 도시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섬	모잠비크
뭄바이 코타치 와디	인도
나라 국립 박물관	일본
싸암 박물관	태국
로벤 섬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톤헨지(스톤헨지와 에이브베리 거석 유적)	영국

실제 사례에서 도출한 주요 교훈

표 4의 사례들은 실제로 유산 해석과 설명을 이행할 때 고려할 교훈과 메시지를 보여준다. 전문가 회의가 도출한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유산 해석과 설명은 정적이지 않으며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 유산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데, 이는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 공동체의 인식 변화 또는 정치적 영향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유산 해석과 설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유산을 둘러싼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 현재의 유산 공동체 해석과 과거 맥락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 유산 자체의 물리적 상태 변화와 사회적 이해에 대한 변화도 해석과 설명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 지나면 유산은 주요 기능이 변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유산이 다양한 공동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면, 각각의 사실과 맥락을 전달하기 위한 신중한 유산 해석과 설명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 유산 해석과 설명은 물리적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이야기와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 유산 가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일부 가치는 시각적인 요소로 전달되지만, 해당 유산과 관련된 숨겨진 맥락과 이야기에 근거한 유산 가치도 있다. 모든 유산이 미적 가치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유산 가치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 대부분의 유산은 해석과 설명이 다양하게 결합된 형태로 전달된다. 유산 설명은 유산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유산 설명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유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과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해석과 설명의 사례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달자의 의도에 따라 어느 정도 강조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해석과 설명 결과는 설명하는 사람과 정보를 전달받는 청중이 누구인지, 그리고 설명에 사용된 자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유산 해석과 설명에는 공식 기관과 개인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많은 주제를 논의할 때는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정 유산 관리 센터나 기관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석과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화적 관습, 종교적 실천, 예술적 활동을 포함한 해석과 설명 과정의 지역사회의 참여는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유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해석과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많은 유산은 등재 과정에서 승인된 '공인된 가치'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치는 주로 예술적(미적)가치, 건축적 가치 또는 역사적 가치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유산은 종종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과 관행이 현재 지역사회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통과 관행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는 유산 가치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유산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전통적인 유산 관행과 유산 장소의 공인된 가치 사이에는 때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유산 해석과 설명은 방문객과 유산을 연결해 준다.

- 유산 해석과 설명의 역할은 처음 방문자와 재방문자 또는 사용자 모두에게 유산과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방문자들은 유산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다. 유산이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문객들은 자신을 해당 문유산과는 무관한 '외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유산 설명은 경험과 유산 가치에 대한 소통을 통해 유산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를 방문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제 질문에 대한 논의와 의견

개별 사례들에 대한 발표 이후, 의제 별로 제시된 질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A 그룹 회의에서 닐 실버만 교수는 중요한 질문들로 논의를 이끌었다. 실버만 교수는 유산 설명이 '매체'와 '메시지'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 매체는 뛰어나지만, 메시지가 인증 차별적 또는 파괴적이며 나쁜 경우가 있을까?
- 반대로, 메시지는 훌륭하지만 매체의 정확성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까?

위 질문들은 회의 의제 질문과 관련이 있다. 근본적으로 유산 설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또한, 회의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이 유산 설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유산 해석과 설명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유산 가치는 해석과 설명이 반복되며 발전한다. 따라서, 유산 설명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산 설명에서 고려할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공개적인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산 해석은 누구나 제약 없이 유산을 이해하는 인지적인 과정으로 정의되었는데, 유산 설명은 특히 이러한 공개적인 토론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두 질문은 B그룹 회의에서도 소개되었는데 여기서도 A 그룹과 유사한 토론이 이뤄졌다. A 그룹과 마찬가지로 좋은 메시지가 나쁜 매체로 구현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도 제시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건설적인지 부정적인지에 관계 없이, 좋은 매체가 어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것도 인식하였다.

또한, 유산을 설명하는 방법은 설명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청중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법, 흥미로움을 높이기 위해 이야기에 허구를 섞거나 과장법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라면 현실성을 강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논의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실행 방법들은 유산의 상황과 실현 가능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메시지와 좋은 매체 사이에 적절한 균형과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산 설명의 중요한 문제는 설명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유산 장소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또한 유산 설명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가치들을 전달할 것인지, 유산 설명을 통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추가적인 고려사항과도 연관이 있다.

1차 회의와 의견서

1차 회의에서의 토론은 종합적으로 유산 해석, 설명, 보존과 관리 문제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토론은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워밍업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의 이후 여전히 전문가 회의에서 해석과 설명의 차이점을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1차 회의 이후 전문가들에게 회의 의제와 유사한 다음 질문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유산 해석과 설명의 '모범 사례'는 무엇인가?
- 유산 해석과 설명의 '나쁜 사례'는 무엇인가?
- 유산 설명에서 유산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유산 해석과 설명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의견서에는 회의에서 제시된 사례들에 대한 요약과 유산 해석 및 설명에서의 전문가 역할, 그리고 유산 해석과 설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의견서는 전문가 회의 이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답변들이 회의 때보다는 훨씬 발전되어 있었다. 특히 전문가 회의 중에는 애매하게 다뤄진 해석과 설명의 차이를 신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진행된 전문가 회의에서는 의견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들과 공통 핵심 이슈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2차 회의

01 의제

- 1차 의견서에서 나온 중요한 단어 공유
- 유산 설명에서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유산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 매체-메시지, 이야기-경험)
- 유산 설명의 영역은 무엇인가?
- 예를 들어, 방문객 시설과 건물 배치를 유산 설명의 일부로 간주해야 하는가?
- 유산 해석과 설명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의제 질문들

2차 회의는 1차 회의 이후 제출된 의견서에서 나온 주요 문구들을 읽으면서 시작되었다. 1차 의견서 내용을 논의하며 A와 B그룹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연결하고자 했다. 모든 전문가 회의 참석자들에게 2차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다른 그룹에서의 회의 내용과 의견서를 사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1차 회의내용과 의견서를 통해 결정된 2차 회의 주제는 설명의 범주와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였다. 1차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유산 설명의 주요 요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1차 회의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사용해 온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2차 회의에서는 해석과 설명의 개념적인 차이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유산 설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와 유산 설명의 개념적 범주가 회의 의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유산 설명의 개념적인 범주에 시설, 접근성, 건물 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1차 의견서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높은 입장료나 언어 장벽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유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를 부정적인 사례로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유산은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적극적인 해석과 설명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기도 한다. 또한 유산 가치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유산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보다 눈에 띄지 않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경우에 따라 좋은 품질의 시설과 높은 접근성은 방문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와 유산과의 연결성 촉진과 의미 창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1차 회의에서 시설 확장과 접근성 향상이 유산 경험과 의미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예시로 제시되기도 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가 유산 설명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1차 의견서의 주요 구문 공유

전문가 회의에서 1차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면서, 유산 해석과 설명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유산 해석과 설명을 ‘좋은’ 또는 ‘나쁜’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어렵지만, 보존 및 관리와 연계된 유산 관련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산 해석이 의미 형성의 과정으로 정의된다면, 유산 설명의 범주와 행위들이 특정 지표로 측정 가능하고 평가 가능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의견서에서는 유산 설명의 카테고리화 행위를 논의하는 관점에서 유산 설명에 대한 전문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1차 회의에서는 유산 해석을 참여, 경험, 그리고 소통을 통해 자율적으로 유산의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유산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기회가 유산 해석으로 인식된 것이다.

하지만, 유산 설명에는 ‘계획과 전달’이라는 측면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유산 설명의 적절한 방법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산 설명 과정은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어려운 용어를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translate)’ 역할이 필요하다.

의제 질문에 대한 논의와 의견

첫 번째 회의의 주요 안건과 두 번째 회의에서 발생한 새로운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했다.

● Q1. 회의 후, 유산 설명에 대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 메시지, 매체, 접근성, 공동체

- 매체, 메시지, 의사소통 방식, 접근 가능성, 공동체 참여
- 가치, 속성, 주제, 관리 목적,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역 공동체 목표, 미디어, 세부 계획
- 방문객의 동기부여, 환경, 메시지(해석의 결과물), 미디어, 해독, 피드백
- 대상, 메시지 및 내용, 수단, 미디어
- 목적, 청중, 메시지 및 이야기, 인프라, 전달 수단, 평가, 계획, 공동체, 피드백, 보고서

● Q2. 유산 설명의 영역은 어디까지 인가?

- 예를 들어, 방문객 시설과 건물 배치를 유산 설명의 일부로 간주해야 하는가?
- 유산 공동체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방문자 시설과 이에 대한 관리가 유산 설명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 이 질문에 대한 토론은 A그룹과 B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학술 분야의 유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A그룹에서는 방문객 시설과 접근성을 유산 해석과 설명의 ‘부수적’인 요소라고 여겼다. A그룹 전문가들은 접근성 향상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 1) 경사 진 지역에 계단을 설치하거나 편의시설이 없는 유산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
- 2) 일반적으로 접근성을 제한해 놓은 곳을 특정 시간이나 시즌에만 접근을 허용하는 것

전자는 유산 경험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유산 가치를 해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유산 설명의 일부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산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므로 유산 설명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 B그룹은 대부분 유산 설명의 실제 이행을 주도하는 현장 관리자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방문객 시설과 접근성이 유산 경험과 기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유산 가치가 중요한 만큼이나 현재 유산 공동체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긍정적인 유산 경험은 유산에 대한 인식과 기억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경험들은 사람들이 유산 가치를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산 공동체의 가치는 유산에서 제공되는 시설과 인프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편의를 누리면서 향상된다. 유산에서 선사하는 방문객 경험과 서비스에 대한 고려는 현장 관리자의 기본 역할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도 유산 설명의 범주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2차 회의 이후 제출된 의견서에는 더욱 발전된 의견들이 담겨 있었다. 방문객 시설은 유산을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필수 환경이자 해석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방문객 시설이 유산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유산 공동체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설명의 일부분이라 데 동의하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방문객 시설이 메시지에 영향을 주거나 유산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방문객 시설은 해석적 요소가 없이도 제공될 때가 많아 유산 설명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논쟁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유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설이나 인프라가 계획된 해석적 경로나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석 전문가가 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어떠한 타협안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유산별 규모, 주변 환경, 관리 시스템이 다양하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이다.

■ **Q3. ‘유산 해석’ 정의 초안에 따르면, 유산 설명이 ‘일방적 소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 2차 회의에서의 새로운 논점은 유산 설명이 반드시 일방적 의사 소통인지, 또는 양방향 상호작용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2차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이 논점은 유산 설명의 행동, 범주 및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2차 의견서에 이 질문이 포함되었다.
- 전문가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이상적인 유산 설명과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상적인 유산 설명이 상호작용을 포함하는지와 실제 유산 설명이 일방적 또는 양방향인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우선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유산 설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유산 설명은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든 포함할 수 있다. ‘설명’이란 단어 자체가 수동적인 청중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전달하는 일방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시사하지만, 유산의 맥락에서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의사 소통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는 많은 경우, 유산 설명이 일방적인 하향식 소통 방식으로 제공된다.
-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유산 설명은 반드시 유산과 사람들 간 상호작용을 포함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전에는 대면 해석만으로 상호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유산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환경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유산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산 설명이 나날이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또한, 유산 설명을 통한 유산과 사람 간 상호작용은 유산 가치를 향상시키고 다채롭게 만들어야 한다. 유산 설명을 통해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이들의 유산 해석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유산 설명을 일방적인지 양방향인지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각 이해관계자가 자신만의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고려하여 의사소통 방식을 스펙트럼 내에서 존재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 3차 회의

01 의제

- 유산 설명에서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유산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 매체-메시지, 이야기-경험)
- 유산 설명의 영역은 무엇인가?
 - 예를 들어, 방문객 시설과 건물 배치를 유산 설명의 일부로 간주해야 하는가?
- 유산 해석과 설명 간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 다음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가?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유산 설명을 일방적인 의사 소통이다.
 - 유산은 해석 없이도 설명이 가능하다.
 - 유산은 설명 없이도 해석이 가능하다.
 - 유산 설명은 반드시 유산 해석 이후에 이루어진다.
 - ‘해석 + 무언가’가 ‘유산 설명 + 무언가’로 대체될 수 있다.
 - 유산에서 설명할 내용을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의 일부이다.
 - 유산에 관하여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의 일부이다.

WHIPIC의 내부 논의: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접근 방식

3차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전문가 회의 참석자들과 WHIPIC 연구팀은 회의 중에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WHIPIC 내부 입장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모든 WHIPIC 직원들이 모여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였다.

먼저, 센터 교육협력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심혜리는 센터가 유산 해석과 설명을 구분하는지 설명하였다. 센터 설립 당시에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학계와 현장에서는 ‘해석’이란 용어가 흔하게 쓰이지만, 유네스코의 주요 문서에는 ‘해석’ 대신 주로 ‘설명’이 사용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WHIPIC은 학계, 현장과 국제적 협력을 아우르는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두 용어를 모두 채택했다고 설명하였다.

WHIPIC 직원들은 센터의 관점에서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각자 공유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산 해석과 설명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독립적인 역할과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해석’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이고, ‘설명’은 비전문가나 유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가치를 소통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해석이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설명이 해석 없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논의 주제이지만, WHIPIC은 해석과 설명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센터의 역할과 각각의 역할과 분야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제 질문에 대한 논의와 의견

3차 회의는 WHIPIC 내부 논의를 공유하며 시작되었다. 3차 회의에서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관계와 차이점, 의사 소통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008 이코모스 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헌장과 1972 세계유산협약은 유산 설명의 다양한 형태를 강조하였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과거에는 ‘일방적 소통’이라는 개념이 ‘대화형 커뮤니케이션’과 구분 짓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유산을 둘러싼 ‘상호작용’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하도록 개념이 확장되었다. 유산 분야 내에서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과 유산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유산 해석과 설명의 관계도 논의하였다. 유산 해석은 유산을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는 반면, 유산 설명은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전달 방식에 중점을 둔다. 유산 설명은 교육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유산 해석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학습과 사고 과정에 가깝다. ‘해석’은 방법이나 주제와 상관 없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인지, 이해, 사고 과정이다. 따라서, ‘유산 해석’과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유산 해석은 전문가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다루는 분야이다.

유산 설명을 정의하기 위한 명제(Propositions)

WHIPIC과의 논의 이후, 의제로 제시된 여러 명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전문가 회의에 제시된 이 명제들은 WHIPIC 팀이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결할 문제들이거나 이전 회의에서 발생한 주요 논쟁점을 기반으로 작성된 문장들이다. 이 제안 사항은 전문가 회의에 제시하였다.

유산 설명은 일방적 의사소통이다.

2차 의견서와 3차 회의를 통해, 유산 설명이 엄격히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과거에도 양방향 유산 설명 방식이 존재하긴 했지만, 주로 일방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의사 소통의 특성상, 소통 방식을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피드백을 수집하는 방향으로 유산 설명이 계획되더라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교육적이고 일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유산 설명의 목적이 유산 해석을 위한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함이라는 점이다.

유산은 해석 없이도 설명이 가능하다.

유산은 설명 없이도 해석이 가능하다.

유산 설명은 반드시 유산 해석 이후에 이루어진다.

위의 세 가지 명제는 유산 해석과 설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산 해석이 항상 설명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 회의 참석자들 간에는 여전히 유산 설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유산 설명이 유산의 가치나 해석된 결과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데에는 어느정도 동의가 있었다. 많은 경우에 유산 설명이 해석 없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유산 해석이 설명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러 차례 회의와 의견서를 통해 유산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부재한 설명이나 그 반대의 경우를 비판하였다. 특히 유산 설명은 항상 해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산 해석은 유산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고, 유산 설명은 이러한 해석적 사고를 기반으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진술을 하는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유산에서 설명할 내용을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의 일부이다.

유산에 관하여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의 일부이다.

위 두 명제는 특정 유산에 대한 설명에 무엇을 포함할지 결정하는 것과 관련 있다. 유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유산 등재부터 신청, 보존, 그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 유산 해석은 특정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모든 가치와 의미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유산 설명의 목적을 고려하여 유산 설명에 어떤 것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을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설명을 어떻게 전달할 지도 선택해야 한다. '선택'이라는 개념은 유산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가치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선택된 내용을 통해 설명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유산 설명의 범주로 간주하였고, 반대로 일부는 선택이 유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유산 해석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4차 회의

01 의제

- 의견서에서 추출한 유산 설명의 요소
-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 제안
-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 초안 작성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의 요약 및 정리

4차 회의를 앞두고, 3차 의견서에는 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라는 질문이 있었다. 더불어 2차 회의 이후 제출한 2차 의견서에도 유산 설명의 '주요 요소'를 제시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 표 5. 전문가들이 제안한 유산 설명 정의 ●

닐카말 차파가인 (1)	유산 설명은 해당 유산에 대해 채택된 해석 체계를 기반으로 유산과 유산 가치를 대중에게 제시하는 활동이자 그 결과물이다. 유산 설명은 유산 해석의 하위 과정이기 때문에, 유산 설명은 해당 유산의 공간, 기술과 방문객 관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유산의 맥락과 필요에 맞게 계획되어야 한다. 유산 해석과 마찬가지로, 유산 설명은 다양한 청중에게 매력적이고 의미 있어야 하며, 유산 보존 및 관리에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
최재현 (2)	유산 설명은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적인 과정이다. 공인된 유산 기관들이 유산과 유산 현장의 다양한 속성과 가치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세심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선택 과정은 유산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하며, 설명의 목적과 특정 대상 청중을 고려하여 진행된다. 더불어 설명 내용은 신중하게 재구성되어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되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사라 코트(3)	유산 설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정보, 특히 자연과 유산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공유하는 방식이다. 유산 설명은 비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학습 환경에서 정보 전달을 위한 다양한 동적/정적 매체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마누엘 간다라 바스케스 (4)	유산 해석 전달('유산 설명'이라고도 함)은 해석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유산 해석 단계 중 하나이다. 해석적 상호작용은 유산에서 개인 해설가 또는 해석적 매체, 또는 온라인 및 기타 동기/비동기 매체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5)	유산 설명은 권리보유자들이 방문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하면서 유산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적절한 설명 전략은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방문자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경우, 설명 전략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속시키는 속성에 기반해야 하며, 적절한 도구를 통해 방문객들이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닐 실버만(6)	유산 설명은 유산의 중요한 측면 또는 가치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진술로, 대중이 자유롭게 보고 이용할 수 있다. 지속적인 해석 과정의 일부인 유산 설명의 목적은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람과 유산 간 연결성과 문화적 그룹 또는 공동체 간 공유된 가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유산 설명은 텍스트 판넬, 인터랙티브 앱 또는 구두로 표현되는 매체와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특정 관점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관점은 윤리적인 접근에 기반을 두어 유산과 관련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지역 공동체가 지닌 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산 가치가 반영되고 인정되도록 한다.

● 표 6. 유산 설명의 주요 요소 ●

닐카말 차파가인 (a)	방문객의 동기부여, 환경, 메시지(해석의 결과물), 미디어, 해독, 피드백
최재현 (b)	대상, 메시지 및 내용, 수단, 미디어
사라 코트(c)	가치, 속성, 주제, 관리 목적,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역 공동체 목표, 미디어, 세부 계획
마누엘 간다라 바스케스 (d)	목적, 청중, 메시지 및 이야기, 인프라, 전달 수단, 평가, 계획, 공동체, 피드백, 보고서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e)	공동체, 비전, 결과, 범주, 대상, 참여의 정도, 리소스, 기관의 역량, 피드백, 예상 수명주기
닐 실버만(f)	매체, 메시지, 의사소통 방식, 접근 가능성, 공동체 참여

여섯 명의 전문가들이 유산 설명의 정의와 핵심 요소를 제시하였다. (표5와 표6 참고)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각 전문가가 생각하는 유산 설명의 정의와 핵심 요소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음 표7에 표시된 대로 겹치거나 유사한 키워드로 분류될 수 있다.

● 표 7. 전문가 회의 참석자들이 제시한 설명 정의에서 사용된 단어 ●

	설명 정의 키워드						유산 설명의 주요 요소					
	1	2	3	4	5	6	a	b	c	d	e	f
유산 해석	✓	✓	✓		✓		✓					
유산 해석	✓	✓		✓		✓					✓	✓
대중/공동체/권리 보유자	✓	✓		✓	✓	✓			✓	✓	✓	✓
대상/방문객/청중	✓	✓				✓	✓	✓		✓	✓	
가치/중요성	✓	✓		✓	✓	✓			✓			
메시지							✓	✓		✓		✓
매체			✓	✓	✓		✓	✓	✓			✓
수단/도구						✓		✓		✓		
커뮤니케이션		✓				✓						✓
전달/표현/전파		✓	✓	✓	✓							

유산 설명'의 정의 초안 작성

4차 회의는 그룹A와 B가 함께 참여한 공동 회의였다. 4차 회의 이전에 두 그룹 간 토론 내용과 의견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4차 회의부터는 동일한 방향을 이해하고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합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4차 회의에서는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유산 설명'의 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1은 이전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WHIPIC 팀이 제안한 것이며, 초안 2는 전문가 회의 중에 제시된 것으로, 표 5,6,7에서 반복되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유산 설명의 목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유산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열거하는 문장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초안 1 유산 설명은 다양한 매체, 인프라와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유산에 대해 전달할 메시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좋은 유산 설명은 훌륭한 해석, 계획 및 평가를 바탕으로 하며, 메시지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초안 2 유산 설명[해석을 대면하는 것]은 다양한 매체, 인프라 및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유산에 대한 메시지/콘텐츠 [해석을 기반으로 한 것]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유산 설명은 유산 해석, 계획, 평가 및 메시지에 대한 폭넓은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 유산 설명[세계 유산 설명]은 유산에 대한 이해나 대중 참여(또는 소비)를 위한 유산 해석의 결과물 또는 표현이다.

하지만, 4차 회의에서 유산 설명에 대해 합의한 초안은 없었다. 이 회의는 두 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첫 회의였고, 유산 설명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않거나 다루지 않은 세부적인 토의 주제들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작년에 수립한 유산 해석 정의와 비교하면서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 초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해석과 설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작년에 제안된 해석 정의도 재평가가 필요한 미완성 초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해석에 대한 정의에서 '목적'에 대해 제시된 부분이 유산 설명 정의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5차 회의

01 의제

-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 [의미, 가치, 정보 등...]
- 유산 설명의 주요 요소 [표현, 전파 등...]
- '인간의 표현' 및/또는 '물리적 유적' 등을 활용한 유산 설명
- 누구에게 설명하는가? [대중, 청중, 누구에게나, 정의할 필요 없음 등]
 - 유산을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 아무나 제시한 유산 설명을 수용할 수 있는가?
- 유산 해석과 설명의 관계

의제 질문

초기에 계획했던 네 차례의 정기 회의 이후, WHIPIC은 4차 회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회의를 계획하였다. 5차와 6차 회의까지 추가적으로 두 개의 회의가 두 달 동안 진행되었다. 5차 회의 의제는 4차 회의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유산 설명이 유산 가치에 대한 표현이나 전달 또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유산 설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유산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유산 설명의 정의에 대한 토론 중에 이러한 주제들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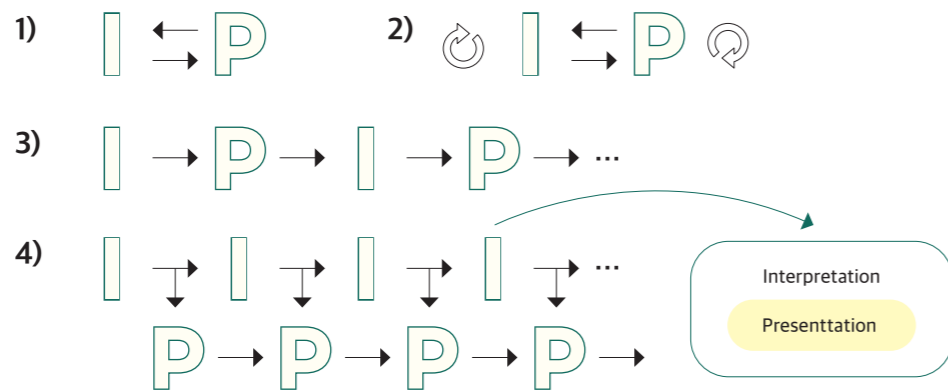
의제 질문에 대한 논의와 의견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은 제안된 안건에 대한 대상, 주요 구성요소 및 유산 설명의 형태 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유산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중요성이란 유산의 의미, 정보, 가치 등을 모두 포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건에 제시된 옵션들이 모든 가능성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에서 유산 설명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언급도 있었다. 유산 설명은 실제 유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 목적과 대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 회의에서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려는 목적은 앞서 언급된 의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유산에서 설명을 진행할 때 적절한 질문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제 질문들은 실제 유산 설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유산 단위의 수준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 설명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에 '왜'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특정 유산에서 유산 설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설명의 목적, 대상 청중, 그리고 전달해야 하는 유산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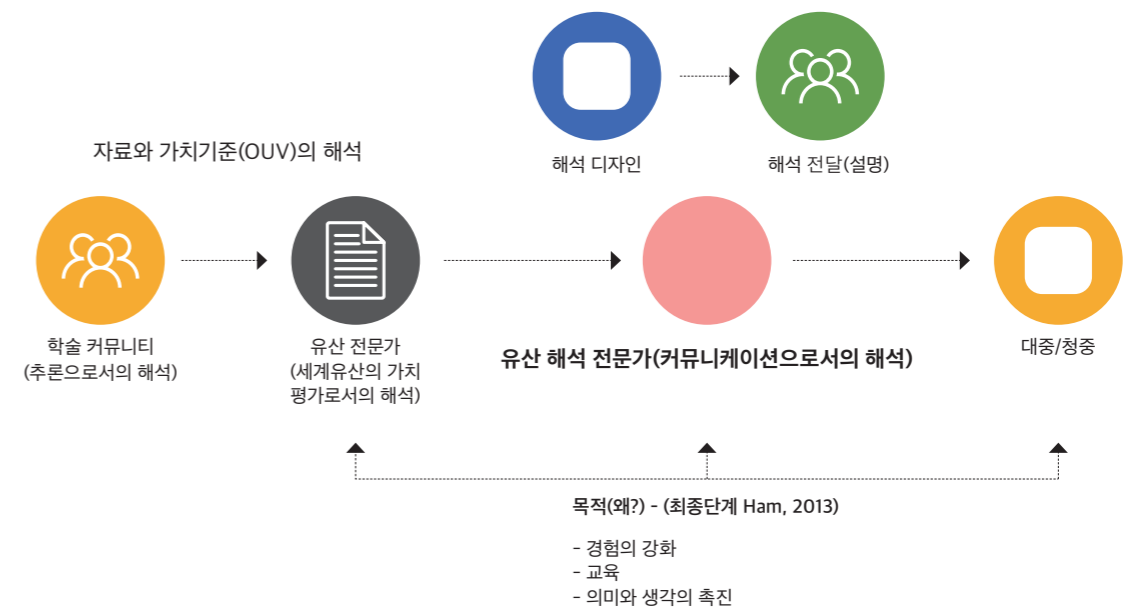
누구나 유산 설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유산에서는 단순한 정보보다는 '해석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사람들이 유산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을 이해하고 유산과의 연결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산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산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석가'가 필요하다.

5차 회의에서는 유산 해석과 설명 간 관계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었다. 특히, 유산 해석과 설명의 반복적인 특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들은 아래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것처럼 유산 해석과 설명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동의하였다. 또한, 유산 해석과 설명이 '순환적(cyclical)'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새로운 유산 해석과 설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도 동의하였다.



● 그림 3. 유산 해석과 설명의 순환적 관계 ●

전문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멕시코 국립유산보존대학교 마누엘 간다라 교수는 유산 해석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아래 다이어그램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다이어그램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산 설명은 유산 해석 안에 '해석 전달' 과정의 일부로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정보와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유산을 평가하고 연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마누엘 간다라 교수가 제시한 유산 해석과 설명 간 관계에 동의하였다. 작년에 '소통, 참여와 경험을 통한 의미 형성 과정'으로 정의된 유산 해석 정의를 바탕으로, 유산 설명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유산 해석 내용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 그림 4. 마누엘 간다라 교수가 제시한 해석 프레임워크 ●

6차 회의

01 의제

- 유산 설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 초안 작성

5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유산 설명의 특성에 대한 간결하고 자세한 질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마누엘 간다라 교수가 제안한 해석 프레임워크와 해석 및 설명 관계에 대해 동의하였다. 따라서 6차 회의에서 전문가 회의는 이 프레임워크와 차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산 설명 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 4 유산 설명은 유산에 대한 경험을 증진시키고 인식과 이해를 높이며, 유산에 대한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해석 전달 과정이다.

초안 유산의 해석에 대한 정의 초안(2022)

‘유산 해석’은 소통, 참여 및 경험을 통한 의미 형성 과정이다. 이것은 사람과 유산 간 연결성을 촉진하고 이해를 증진시킨다.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윤리적이고 참여적 이여야 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및 공동체가 지닌 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산 가치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한다.

이전 회의에서 지적된 대로, 유산 설명의 정의 초안을 기존 해석 초안과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6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기존의 해석 초안과 유산 설명 초안4를 비교하고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초안4에 몇 가지 수정 사항이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제안 1 유산 설명은 유산/지역에 대한 해석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참여적 도구를 활용하여 유산/지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참여를 일으키며, 유산 해석을 환류의 과정으로 다시 연결함으로써 유산/지역과의 긍정적인 경험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제안 2 유산 설명은 소통, 참여 및 경험을 통한 의미 형성 과정이다. 설명은 유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일방적인 소통 수단이다.

‘참여(Engagement/Participation)’를 설명에 대한 정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요 제안 중 하나였다. 참여는 단순히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또한 해석의 정의 초안에 참여와 경험을 강조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유산 설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유산 경험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또 다른 주요 제안은 유산 설명이 ‘과정’인지 아닌 지에 관한 것이다. 유산 해석에 대한 초안을 작성할 때, 유산 분야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의 배경과 경험이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유산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주된 문제가 아니었다. 유산 해석은 유산의 의미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포함하지만, 유산의 가치와 의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고 견고해진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해 유산 설명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이전 회의에서 강조된 바에 따르면, 유산 설명은 명확한 목표와 행동을 기반으로 유산의 해석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세한 평가를 통해 설명 목표 달성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유산 자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6차 회의 결과, 유산 설명에 대한 최종 초안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최종 초안 ‘유산 설명’은 유산과 관련된 경험을 향상시키고, 인식과 이해를 높이며, 유산에 대한 참여를 일으키기 위해 해석을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론이다.



IV

정의 초안과 논평



IV

정의 초안과 논평

◆ 정의 초안

- ▶ 유산 해석은 의사소통, 참여 및 경험을 통한 의미 형성 과정이다.
- ▶ 유산 설명은 유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촉진하며, 유산 관련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산 해석을 전달하는 다양한 수단이다.

이 장은 2022년과 2023년 동안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정의 초안에 대한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한다. 마지막 회의(6차 회의)에서 전문가 회의 참석자들은 이전에 작성된 유산 해석 정의 초안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유산 설명 정의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이전에 많은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해석과 설명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산 해석과 설명 간 겹치는 부분은 더 명확한 개념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두 개념 간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6차 회의에서 최종적인 설명 정의 초안을 작성한 후,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논평 1

● 작성자: 닐 실버만 (Neil Silberman)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정의를 다시 읽어보니, 두 개념 간 구분이 명확하고 유용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두 용어 간 혼동이 야기하는 어려움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해석’은 최근 몇 십 년간 모든 종류의 유산 안내와 현장 정보를 포괄하는 통합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한편, ‘설명’은 1972년 세계유산 협약을 포함한 국제 헌장, 문서 및 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유산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된 용어이다. 두 용어가

종종 동의어로 여겨지지만, 각 용어의 역사와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해석’은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것이며, ‘설명’은 유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식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해석의 정의 초안은 의미 형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유산에 대한 물리적, 연대적 사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유산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정치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현대적인 태도, 개인적 미적 선호도와 관련성을 다룬다. 요약하면, 해석은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고찰을 의미하며, 단순히 전문가에 의해 공인된 사실만을 나열한 것은 아니다.

해석 정의에는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암시적인 경고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유산 전문가들이 중대한 기념물과 유산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전문가 회의에서는 일부 유산 해석의 형태(특히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종 또는 성 우월주의, 성차별, 또는 문화적 편협의 암시적인 표현 등)가 매우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것이 해석 정의의 두 번째 문장에 ‘~수 있다(can)’는 표현을 포함한 이유이다. 해석은 ‘인식을 제고하고 사람과 유산 간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이는 윤리적으로 다문화적 관용을 촉진하고 ‘우리(us)’와 ‘그들(them)’ 사이에 경계를 만들지 않고 사용될 때에만 가능한 얘기이다.

마지막으로, 유산 설명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해석 전달(delivery)’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해설은 유산 현장에서 누구나 현장에서 보거나 듣는 것에 반응하거나 조용히 속으로만 수행할 수 있는 다면적인 활동이지만, 유산 설명은 해석에 대한 내적(또는 지적) 구체화 과정이다. 설명은 구체적인 유산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특정 관점의 표현이다. 이는 정보 제공 패널, 멀티미디어 앱, 가이드 스크립트, 구조화된 대화, 심지어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 두 가지 정의에 대한 수립은 유산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개념화하는 데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에 건설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론과 윤리적 지침의 발전과 연구에도 견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논평 2

● 작성자: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Mario Santana-Quintero)

지난 몇 달 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해석과 설명에 새로운 접근 방식과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개념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아우르며 세계 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해석은 유산을 특정한 뜻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라면 유산 설명은 유산에 대해 해석된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앞으로 설명과 해석의 개념을 활용하여 개발할 원칙, 지침과 보충 협약도 유사한 합의 방식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실제 세계유산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이러한 개념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 연구나 시범 프로젝트를 찾으면 유용할 것이다. 보존 원칙과 마찬가지로 지침 문서들은 다양한 지역과 문화에 적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며, 해석과 설명에 대한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논평 3

● 작성자: 사라 코트(Sarah Court)

전문가 회의에서 작성한 정의 초안에서 수정된 버전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산 해석은 소통, 참여 및 경험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유산 해석의 목적은 사람과 유산 간의 연결성을 촉진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유산 설명은 해석을 전달하는 일방적 수단이다. 유산은 유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유산 참여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다.

[유산 설명은 학교 같은 공식적인 학습 환경이 아닌 장소에서도 비형식적 학습을 지원하고, 여러 수단을 통해 유산 해석에 대한 비공식적이거나 체험적 학습도 지원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윤리적이고 참여적이어야 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및 공동체가 지닌 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산 가치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한다.

WHIPIC의 목표는 유산 해석과 설명을 정의하여 이 두 개념을 대중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정의 초안은 전문가 회의에서 수 차례의 논의, 토의와 반영의 결과이긴 하지만, 최종 초안을 보고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재한 독자가 해석과 설명의 차이를 식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각 정의에 사용된 단어들은 유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세계 유산에서 유산 해석을 수행해야 하는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유산 해석과 설명 간 관계와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설명은 해석이 전달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즉,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는 해석이 보다 체험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용어와 학습/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논평에 이탤릭체로 포함하였다.

3. 유산 해석 정의의 마지막 문장은 실제로 해석과 설명 두 용어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마지막으로 옮겨 두 용어에 모두 적용되도록 하였다.

논평 4

● 작성자: 도미니크 부샤르 (Dominique Bouchard)

유산은 단순히 구조물이나 대상물(object)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다. 유산은 유산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유산은 단순히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유산을 식별, 이해, 관리, 보존, 소통하는 문화적 및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Smith, 2006, p. 13) 유산은 '역사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현대적 산물'로 설명되기도 하며 (Tunbridge & Ashworth, 1996, p. 20), '과거를 현재의 어떤 목적을 위해 재포장하는 것'으로 언급(Harrison, 2010, p. 10)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산은 보존에 대한 의미가 명시적이든 아니든 근본적으로 구조화된 인간 활동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유산 해석은 전문가와 방문자 간 상호작용으로 유산의 의미를 계획적으로 탐구 및 생성하고, 발전시키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이다. 종종 해석은 방문자가 타인이 형성한 유산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청중, 관객, 수신자가 되는 불균형한 상호작용이 되기도 한다.

방문자는 의미 창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참여란 방문객이 스스로 하는 내적 참여 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방문자가 유산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본인에게 의미 있는 것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길(실제로도 비유적으로도)을 찾을 수 있게 해석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유산 해석 과정에 방문객이 계획적으로 참여하는 상호작용, 공동 큐레이션, 연구 참여 등 외적 참여도 존재한다.

유산 참여를 통해 방문자는 유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 대상이 아닌 유산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최고의 유산 해석은 방문자를 유산 해석 과정에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방문자와 유산 간 관계를 형성하여 방문자가 방문 이후에도 유산의 의미를 발견하고 공유하여 유산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방문 후에도 방문자는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방문 경험을 공유하고, 방문을 돌아보며 유산에 대한 흥미를 발전시키거나, 다른 유산에 방문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유산 설명은 유산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 결과로

유산 의미를 전달한다. 해석과는 달리, 설명 과정에서는 의미 형성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며 형성된 의미에 대한 의문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 해석 과정에서 방문자들은 의미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기도 있지만, 반대로 설명 과정에서는 대부분 형성된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단, 설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피드백 양식 작성이나 기부를 통해 부분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한다. 방문자들은 (보통) 유산의 보존이나 청소, 경로나 편의시설 건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유산 설명 과정에서 내재된 의미 형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면(예: 유산 보존에 대한 전시) 설명이 아니라 해석으로 바뀐다. 의미 형성 과정이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지에 따라 설명과 해석이 구분된다. 설명이 해석에 종속된다는 뜻이 아니다. 반대로, 유산 기관에서는 구조물의 어떤 요소를 유산으로 보존하고 어느 부분을 보존하지 않을지 등 명시적으로 설명 관행과 절차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해석은 방문자에게 이러한 선택을 명시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유산 설명은 유산 보존부터 방문자 경로, 건축물 설계와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문자와의 암시적으로 소통하는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설명은 방문자 경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방문자 경험은 방문자의 만족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문자가 유산을 경험하는 방식까지 포함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문자 경험은 방문자가 유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의 일부분이다. 유산과 방문자 간 연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산 설명은 유산의 의미 있는 요소에 대한 합의된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 즉, 유산 해석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유산 의미와 상충해서는 안된다. 유산 해석의 목표 중 하나는 방문자들이 설명에 내재된 유산의 의미와 관련된 사고와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Harrison, R. (2010) 'What is heritage', in R. Harrison (ed.) Understanding the politics of heritag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Harrison, 2010)

Smith, L. (2006) Uses of Heritage. London: Routledge.

Tunbridge, J.E. and Ashworth, G.J. (1996) Dissonant Heritage: The Management of the Past as a Resource in Conflict. Chichester: Wi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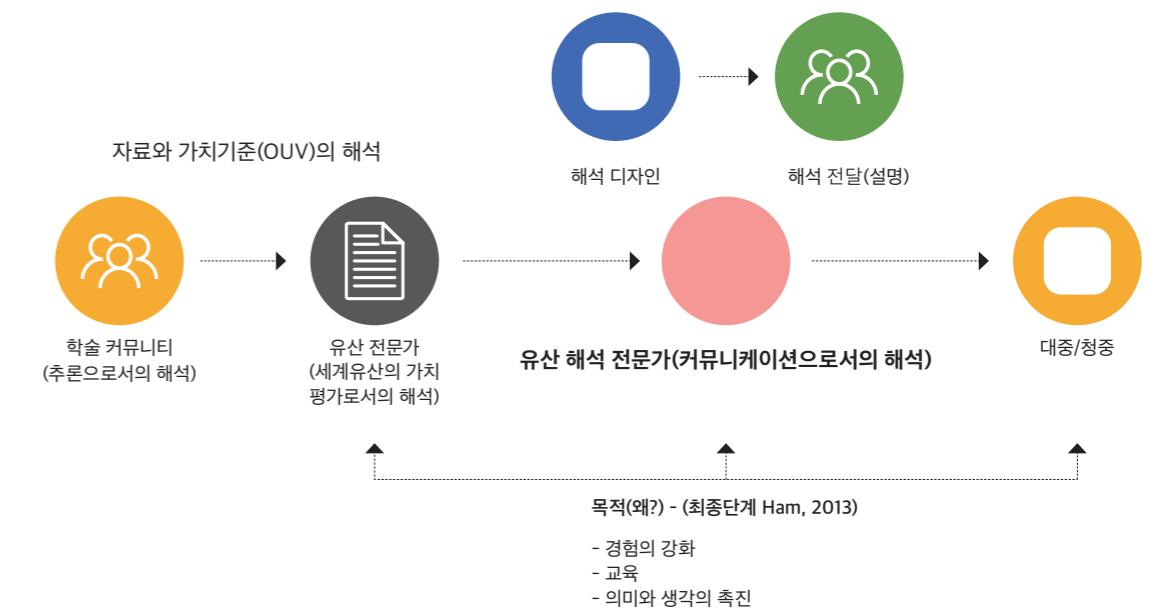
논평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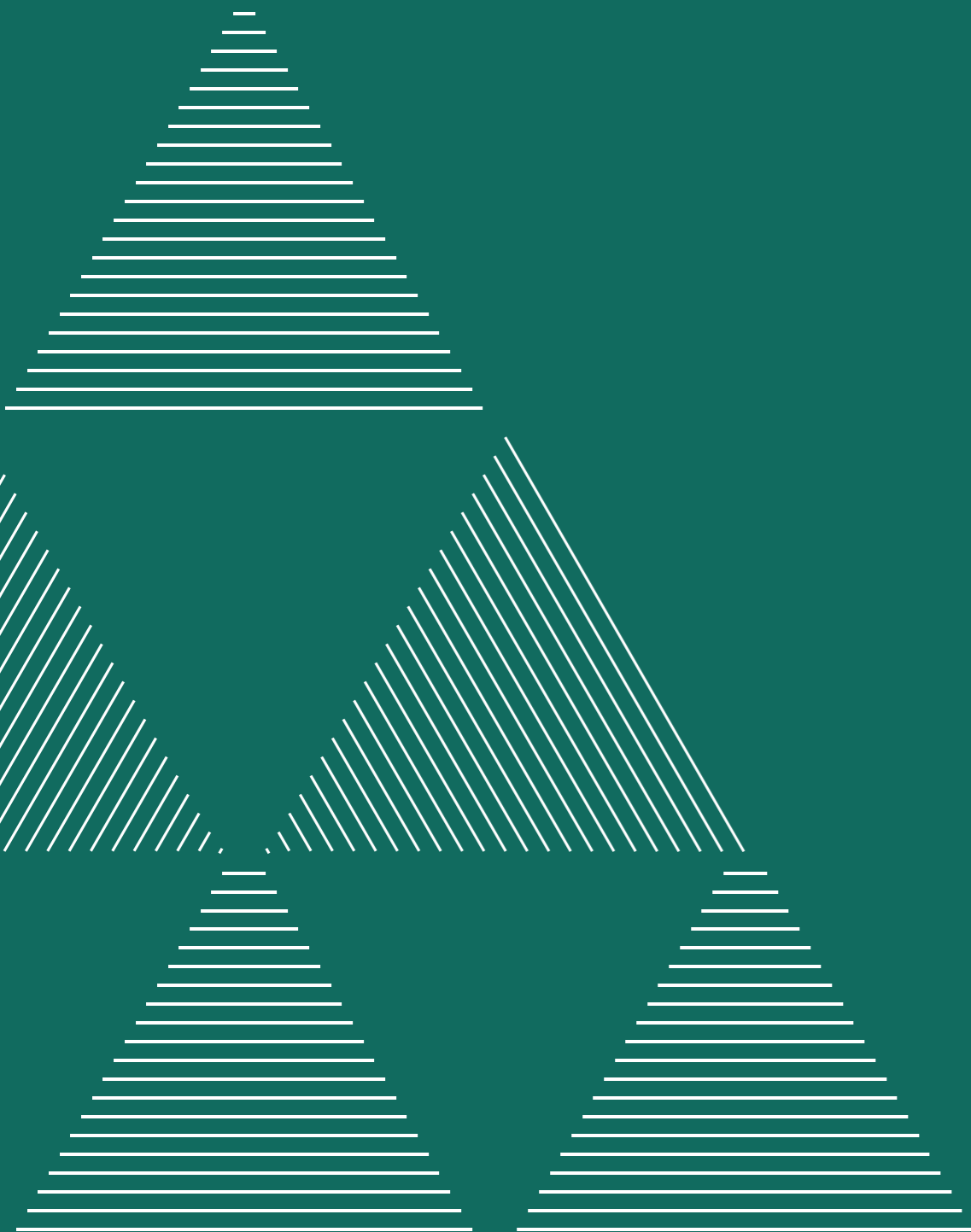
● 작성자: 마누엘 간다라 바스케스(Manuel Gándara Vázquez)

전문가 회의 내용이 정의 초안에 잘 반영된 것 같다. 다만, 이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연결성(connection)' 앞에 '긍정적인(positive)'이라는 형용사를 추가하는 걸 제안해본다. 이는 설명은 양방향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명 정의에 '이론(theories)'을 추가하여 '다양한 이론 및 방법론(the range of theories of methodologies)'으로 정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1972년 협약 당시 보다 상당한 양의 유산 해석 문헌이 나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문화 간 해석(intercultural interpretation)'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고 싶다. 이 개념은 설명 정의에 직접 포함될 필요는 없지만, 연구 배경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지역 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될 때, 유산 해석(전달 또는 설명 포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다음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보았다.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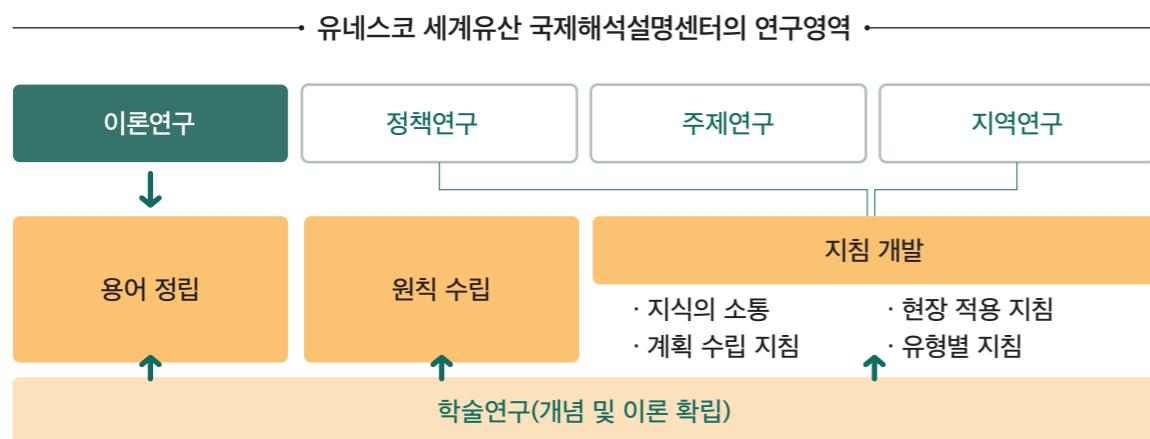
더 나아가며





더 나아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정의 및 개념을 탐색하고, 유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방식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념과 정의를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2년부터 WHIPIC 이 수행하고 있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 및 정의’이라는 장기적인 이론 연구 프로젝트의 두 번째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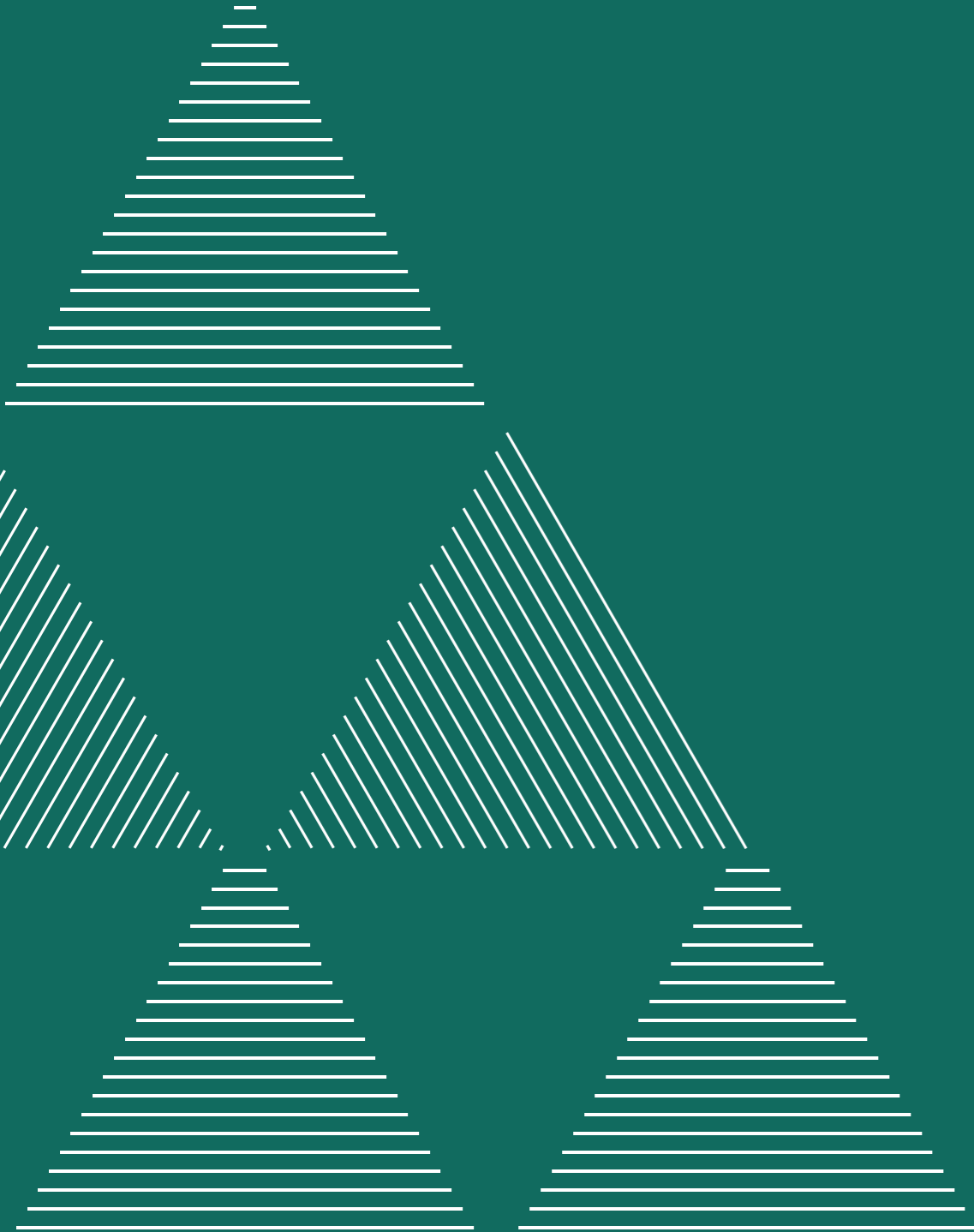
2024년부터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산 해석과 설명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유산 해석과 설명의 기본 원칙은 해석과 설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칙들이다. 이 원칙들은 여러 유산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특정 상황과 도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여러 유산과와 공동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윤리적 원칙, 평가 기준, 현장 안내, 계획 가이드라인, 다양한 유형의 유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2024년부터의 연구는 유산 해석과 설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 간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정의 초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다양한 유산 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초안을 최종 버전으로 수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유산 해석과 설명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해석 및 설명 방식들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정의와 개념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론적으로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세계유산 시스템을 포함한 유산 관리 시스템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어려움을 야기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론적 개념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현재 방법론과의 차이를 좁히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연구 과정에서 검토된 대부분의 사례들이 유산의 문화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에서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이 ‘인간의 이해’에 대한 문화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해와 이야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산은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문화와 자연에 관한 논쟁을 넘어 하나의 맥락에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산 해석과 설명이 유산의 물리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산과 설명은 소통, 참여, 경험,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산 의미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가장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개념 및 정의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를 통해 유산 해석과 설명이 ‘유산’만큼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복잡한 개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기본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심층 연구는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지만, 올해에도 연구를 진행하며 수립해야 하는 기본 원칙에 대하여 여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본 원칙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 지금까지 수행한 논의들을 통해 도출한 주요 키워드가 앞으로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록



부록

▲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전문가 회의 (DC 전문가 회의) 참여연구진 의견서

이 부록은 1-3차 회의 이후 참여 전문가들이 제출한 의견서이다. 설명 정의의 초안을 작성하기 전 1-3차 회의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었고, 본문에 담지 못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부록으로 실었다. 작성자들이 사용한 원래 단어들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단어들만 아래의 용어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 ▶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이코모스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헌장), Ename Charter(에나메 헌장) > 이코모스 에나메 헌장(2008)
- ▶ WH, World Heritage > 세계유산
- ▶ 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 > OUV



1차 회의 의견서

✦ 작성자: 닐 카말 차파가인 (Neel Kamal Chapagain)

1. 필자가 생각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모범 사례’는 무엇인가?

유산 해석의 모범 사례로는 최근 인도 뭄바이의 코타치 와디(Khotachiwadi) 마을에서 안드레 밥티스타(Dr. Andre Baptista)가 수행한 유산 도보탐방, 유산 설명의 모범 사례로는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Colonial Williamsburgh)를 꼽는다.

우리는 유산 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논의해왔다. 이를 고려했을 때, 코타치 와디 마을의 주민인 안드레 밥티스타가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도시 유산 관리의 현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자 수행한 유산 도보탐방은 변화한 뭄바이 한복판에 자리한 역사 도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통찰력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하였다. 도시 유산의 여러 가지 측면 아니라 밥티스타 본인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들의 이야기도 풍부하게 잘 드러냈기 때문에 좋은 해석 사례로 소개한다.

반대로 유산 설명의 모범 사례로는 약 10여 년 전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를 방문한 경험이 떠오른다. 당시 유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관계자는 아니었지만, 방문객으로서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었다. 다른 역사 유산처럼 해석 자체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방문객이었던 나에게는 유산 설명 전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 필자가 생각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안 좋은 사례’는 무엇인가?

‘안 좋은 사례’로 꼽을 만한 예시나 경험이 딱 한 가지로 떠오르진 않지만,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유산 해석과 설명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는 생각한다. 남아시아에서는 보호 지역을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 유산이라고 설명하기 보다는 ‘보호’해야 하는 유산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해석 자료도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제공되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배워야 하는 또는 배우고자 하는 이유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해석과 설명만 제공된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3. 유산 설명에서 유산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에서는 유산 설명만 언급되었지만, 유산 해석 또한 유산 전문가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유산 설명에서 유산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전반적인 토론 맥락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산 전문가의 역할은 설명 자료에 의도된 메시지가 포함되어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유산 설명에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4. 유산 해석과 설명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유산 설명은 유산 해석의 하위 과정이자 결과물이다. 작년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유산 해석은 유산 등재부터 유산 가치에 대한 평가, 해석 계획 준비, 유산 설명 및 참여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 반대로, 유산 설명이란 특정 청중에게 (일반 방문객일 수도 있음) 특정한 유산 가치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구체적인 행위이다. 유산에 대한 좋은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산에 대한 설명이 허술할 수 있다. 반대로 좋은 해석을 바탕으로 한 유산 설명은 메시지가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어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설명이 될 확률이 높다.

✦ 작성자: 최재현(Jae Heon Choi)

1. 필자가 생각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모범 사례’는 무엇인가?

유산 해석의 모범 사례로는 최근 인도 뭄바이의 코타치 와디(Khotachiwadi) 마을에서 안드레 밥티스타(Dr. Andre Baptista)가 수행한 유산 도보탐방, 유산 설명의 모범 사례로는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Colonial Williamsburgh)를 꼽는다.



왼쪽 사진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새긴 표지석이다. 이 돌은 과거의 선조들이 남한산성을 축성했을 당시 사용되고 남은 석재이며, 방문객이 유산을 스스로 발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오른쪽 사진은 익산에 위치한 또 하나의 세계 유산인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설명이다. 이 안내판에는 복원 작업 전후로 동쪽, 서쪽 석탑에 대한 모습이 모두 서술되어 있다. 한글과 영어 두 언어로 유산에 대한 설명과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이 기술되어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방문객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설명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이 안내판은 방문객에게 전반적으로 향상된 경험을 선사한다.

2. 필자가 생각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안 좋은 사례’는 무엇인가?



왼쪽은 2023년 4월 20일에 일본의 나라국립박물관(Nara National Museum)에 전시된 지도를 찍은 사진이다. 이 지도는 불상의 확산을 설명하려는 시도였지만,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경로가 부정확하고 불명확하게 표시되어, 학술적 근거에 기반하여 불교의 확산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다. 오히려 이 지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한 일본 불상의 보존 방식과 장인 정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지도는 방문객들에게 불교의 확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지역의 유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교토 료안지에 위치한 안내판인데, 영문 제목과 설명에 몇 가지 부정확한 용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유산의 올바른 영어 명칭인 ‘세계유산(World Heritage)’ 대신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 Site)’이 사용되었으며,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상징하는 로고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 나와있는 것과 다르다. 또한, 료안지가 연속유산(serial nomination)으로 등재된 유산인 데도 불구하고, OUVOUV와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해석 정보의 부족과 부정확성으로 방문객과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안 좋은 사례이다.

3. 유산 설명에서 유산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산 전문가의 역할은 방문객과 청중에게 세계유산의 유형적이고 무형적 측면을 아우르는 완전한 내러티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유산 전문가는 포용적인 참여와 다양한 유산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고 방문객들이 자신만의 해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유산 전문가들은 대상 청중이 누구인지에 따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야기, 과학적 지식, 사실과 수치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유산을 설명할 수 있다.

유산 전문가는 세계유산을 하나의 물질로 보거나 일방적인 교육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유산의 문화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또한 유산 과정, 협업, 적극적 참여, 지역 공동체의 기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참여 도구, 윤리, 포용성과 공감, 설명 역량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보다 다양한 혜택이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산 설명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및 설명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산 전문가가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유산 해석과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할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공인된 유산 담론(AHD) 이외에도 전문가 교육과 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유산 해석과 설명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코모스 에나메 현장(2008)에 따르면 ‘해석’은 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 활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산 직원이나 방문객도 모두 유산 해석을 수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각각의 개인들은 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려 하고, 본인의 세계관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유산 해석에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포함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유산 해석에 대한 관점이 공인된 유산 담론(AHD)과 같은 단일적인 접근방식에서 경험에 기반한 다중 시각의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해석 방식으로 현저하게 바뀌었다. (Choi, 2018)

이코모스 에나메 현장(2008)에는 ‘설명’이 유산에서 해석적인 정보 배열, 사람들의 물리적 접근, 또는 현장과 현장 밖의(off-site) 시설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획된 해석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유산 설명은 설명하는 주체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단방향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명 목적과 대상 청중이 분명해야 하며, 각 상황에 맞는 적합한 설명 방법과 매체가 활용되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대중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공인된 유산 기관의 권한과 학술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다. 설명 방식은 디지털 기술과 그래픽 도구 등 다양한 매체 중 어느 것을 활용 하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웹 페이지, 현장 정보 안내판, 전시회 안내판, 브로셔,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은 매체 특성과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장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설명은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토론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고 개인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일부 경우에는 ‘설명’이 유산 중요성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이나 네트워크에 의해 승인되고 채택된 공식적인 진술을 의미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가 설계한 방식, 원칙과 전략에 따라 설명된다.

설명 매체 또는 방법과 관계 없이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 제공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유산 정보 전달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유산 설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 참고문헌

A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Guidelines (2017) Interpreting and Presenting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 Fecuela Taller de Filipinas Foundation, Manila City.

Choi, J.H. (2021) In search of Heritage Place and Memory Discourse, Considering Plural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Journal of World Heritage. KU World Heritage Research Center. 7(2). 1-13.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2008) ICOMOS Canada. Retrieved from https://www.icomos.org/charters/interpretation_e.pdf

Silberman, N. (2022), What is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World Heritage: 50 Years and Moving Forward. WHIPIC. 16-37.

◆ 작성자: 사라 코트(Sarah Court)

1. 필자가 생각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모범 사례’는 무엇인가?

다음은 정적 해석(static interpretation)과 실시간 해석(live interpretation)에 대한 두 가지의 사례이다. 이 사례들은 Tilden(1957), Beck & Cable(2002),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해석 전문가들이 논의한 유산 해석의 우수한 실천 원칙들을 잘 보여준다.

싸얌 박물관(Museum of Siam) (태국)

싸얌 박물관은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이 국가적, 개인적 정체성을 탐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탐구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국제 방문객들에게도 태국에 대해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곳에서는 방문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매체들이 활용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해석

수단은 박물관 방문객에게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들이다. 질문에 대한 고찰을 돕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방문객들은 본인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적인 요소는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빅 핏 국립 탄광 박물관

(웨일즈에 위치한 세계유산인 블레나본 산업 경관(Blaenavon Industrial Landscape))

방문객에게 직접 지하 탄광을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이 ‘박물관’은 방문객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 탄광 헬멧과 장비를 착용하고 지하 탄광 갱도로 내려간 방문객들은 가이드가 실제 광부의 1인칭 관점에서 들려주는 설명을 듣게 된다. 실제 탄광에 와있는 듯한 사실적인 탄광 방문 경험은 방문자의 질문에 따라 해석 콘텐츠도 조금씩 달라진다. 지상으로 올라오면 방문객들은 전통적인 탄광 시설을 둘러보며 광부와 광업 커뮤니티 전반의 인간적인 삶도 들여다보게 된다. 방문자들은 오래 지속될 추억을 가지고 탄광 투어를 마치게 된다. 이는 블레나본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탄광 방문 경험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OUV를 방문객에게 보여줌으로써 달성할 수 있던 결과이다.

2. 필자가 생각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안 좋은 사례’는 무엇인가?

세계 곳곳의 유산에서 흔히 발견되는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다.

유산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고 사실만 제공하는 경우: 유산에 대한 콘텐츠에 유산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은 부재하고, 데이터와 관련된 측면(즉, 역사적 날짜, 규모, 유형, 종 등)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유산 해석은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유산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를 촉진하는 콘텐츠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실패 사례: 전문가들은 종종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유산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공식적인 언어는 유산과의 의미 있는 참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기술적인 용어들은 유산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라틴 용어는 고고학적 유산의 특징이나 보호 구역의 종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곤 하는데, 많은 방문객들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용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표준화된 접근방식으로 인해 장소성을 상실하는 경우: 몇몇 기관들은 관리하고 있는 여러 비슷한 유산에 동일한 해석/설명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런千篇일률적인 접근방식은 각 유산이 보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유산이 다른 유산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여러 유산에서 표준화된 해석/설명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방문객들은 하나의 유산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장소와의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한다. 이는 일부 장소는

불필요하다는 인상을 주어 유산 보존에 대한 지지가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연속유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

3. 유산 설명에서 유산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산 전문가’란 해당 유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포용적인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용어는 유산 현장 관리자 또는 학계 전문가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곤 하는데, 해당 유산과 관련 있는 공동체의 모든 지식 보유자들도 유산 전문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유산 전문가들은 유산 가치와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밀 또는 민감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한, 해석/설명 관리 목표 달성(보존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부터 티켓 수입 증가에 이르기까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산과 관련된 관리 문제를 식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유산 전문가는 장소가 수용 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새로운 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안된 해석/설명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산 전문가들은 유산 해석/설명에 대한 계획, 설계와 전달을 위해 전념하는 다른 전문가들과 하나의 팀으로 협업하며 작업에 임해야 한다. 유산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유산 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지식을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타인에게 의미 있는 해석 경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가들도 필요하다.

4. 유산 해석과 설명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유산 해석’과 ‘유산 설명’을 구분하려는 시도(예: ICOMOS, 2008)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두 용어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용어의 쓰임새는 유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고학적 유산은 대중에게 ‘설명’되는 경향이 있고, ‘해석’은 주로 국립 공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용어의 실질적인 의미 차이보다는 오히려 전문가의 배경과 경험이 용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두 용어 간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두 용어를 구분 짓기보다는 관리 및 보존 노력을 지원하고 동시에 사람과 장소를 연결시키는 활동 영역을 하나의 단일 용어를 통해 명확히 정의하고 묘사하는 것이 유산 전문가에게 더 유용한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유산 분야에서 ‘유산 설명’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이 용어가 세계유산협약(제4조-6조)에서 당사국의 주요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운영 지침(예: 15항)과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가 마련한 기타 문서에서도 사용된다.

반면, ‘유산 해석’의 쓰임새는 보다 넓으며 해석 전문가들이 특히 많이 사용한다. ‘해석’의 장점은

하나의 인정 받은 학문 분야로서, 해석이 사람과 유산을 어떻게 연결하고 유산 보존 노력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수많은 학술적 연구와 실무 경험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 Ham, 2013) 즉, '해석'이라는 용어는 보다 포괄적이며 미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Beck, L. and Cable, T. (2002) Interpretation for the 21st Century: fifteen guiding principles for interpreting nature and culture. Champaign IL: Sagamore Publishing.

Ham, S.H. (2013) Interpretation: making a difference on purpose. Golden CO: Fulcrum Publishing.

ICOMOS (2008)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online]. Available from: https://www.icomos.org/images/DOCUMENTS/Charters/interpretation_e.pdf

Tilden, F. (1957/2007) Interpreting Our Heritage. 4th ed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작성자: 마누엘 간다라 바스케스 (Manuel Gándara Vázquez)

1. 필자가 생각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모범 사례'는 무엇인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해석 사례 중 하나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알카트라즈 감옥(Alcatraz Prison)에 대한 해석이다. 90년대 초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 운영 중이었다: 1) 소규모 방문객 센터/박물관과, 2) 카세트로 제공되는 오디오 가이드였다. 일부 방문객들은 박물관을 건너뛰었지만,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와 시대 속에서 사회적 규범이 되는 행동이 무엇 인지과 이를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할 기회를 주었다. 이는 오디오 가이드와 감옥 방문에 대한 훌륭한 배경 설명이 되었다.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대다수의 방문객이 흥미롭게 여기는 알 카포네 감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옥이 폐쇄되고 비워진 후에 일어난 사건이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감옥이 폐쇄되고 비워진 후에 일어난 사건이 가장 흥미로웠다. 감옥 방문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인디언들이 알카트라즈를 점령하고 '인디언 국가'의 수도로 선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디언들이 감옥을 점령하려고 한 정당한 사유와, 연방 정부가 감옥을 되찾기 위해 점령 기간 동안 난동을 부른 침투자를 핑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다. 이 사건은 유산 커뮤니티와 박물관에서 '원주민 민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없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 알카트라즈 감옥에서의

해석과 설명은 평범하지 않은 '라디오 스토리' 서술 방식으로 극적인 요소가 담겨있었다. 이런 점이 큰 감명을 남겼다.

2. 필자가 생각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안 좋은 사례'는 무엇인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고르기 어려웠지만, 2000년대 초 페루 마추 픽추(Machu Picchu)를 방문했을 때로 결정하였다. 당시 '필수'였던 가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이드가 유산에 대한 방문객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온갖 거짓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 이었다. 가이드의 설명을 벗어나기 위해 중간에 '길을 잃어버린 척'을 하고 유산을 혼자 둘러보기 시작했지만 이곳에서는 '가이드'가 제공하는 설명 이외에는 유산에 대한 해석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당시 가이드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가이드들은 '인증' 뱃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쿠스코(Cusco)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다른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만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아닌 걸 알게 되었다. 다른 방문객도 인쇄된 가이드북이 없었다면 유산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투어는 국제 회사 및/또는 쿠스코의 현지 회사에서 가이드를 고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가이드 제도가 소규모 마을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었다. 또한 투어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다양한 방문객을 포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제한되었다.

그 이후로 마추 픽추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2017년 즈음 마추 픽추 관리자가 멕시코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이제는 개별 방문이 허용되지만 여전히 가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자 비율이 많으며, 가이드 인증 절차는 매우 엄격해 졌다고 설명했다. 티켓 구매 시에는 관광 코스와 입장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산 피해를 막기 위해 방문객들이 지정된 보행로를 따라 걷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고 한다. 유산 웹 사이트(<https://www.machupicchu.gob.pe/>)에는 주요 건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지도가 포함된 두 페이지 소책자가 있으며, 이는 스페인어, 영어, 케추아어 세 언어로 지원된다. 전문가를 위한 다운로드 용 두 권의 연구서(총 약 1,000 페이지)와 OUV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포토 에세이도 있다. 유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석 자료나 정보 라벨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3. 유산 설명에서 유산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산 전문가들은 (적어도 세계유산에 대해서) 초기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들은 주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되며,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연구 근거를 모아서 제출한다. 또한 OUV를 정의하는 것도 유산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면 OUV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변경 절차가 복잡하여 업데이트가 자주 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OUV의 물리적인 근거 또는 발현이라고 여겨지는 특성 또는 영역들을 해석 전달 과정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산 전문가들은 (적어도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유산 '해석'에 대한 훈련은 받지 않는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 대중에게는 기술적이고 난해한 경우가 많다. 유산 전문가가 해석을 디자인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유산 전문가, 해석 전문가와 미디어 디자이너 간에 갈등이 생기곤 한다. 왜냐하면 유산 전문가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 지식을 백과사전처럼 철저하게 제공하려고 하고, 유산 해설가들에 의해 지식이 변형되거나 ‘사소’해 지는 것을 불쾌해 하기 때문이다. 이는 박물관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다. 큐레이터들은 커뮤니케이션/전시 디자인 팀의 요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산 전문가의 언어를 파악하여 청중이 이해할 수 있고 가능하면 즐거움까지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해석 전문가의 역할이다. 따라서, 해석 전달(유산 설명) 과정에서는 유산 전문가들이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오히려 이상적인 것 같다.

4. 유산 해석과 설명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유산 설명이란 해석 전문가가 유산의 모든 가치에 대해서 생성한 해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포용적 참여를 강조하며 세계유산 보존 목표와 특정 유산의 OUV에 부합하는 유산 가치에 대해 서술한다. 해석 메시지는 다양한 내러티브와 경험을 통해 전달되는데, 현장에서 현장 해설가에 의해 직접 수행되거나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해석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 작성자: 마리오 산타나-퀸테로(Mario Santana Quintero)

1. 필자가 생각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모범 사례’는 무엇인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Auschwitz Birkenau)는 1979년 등재기준 VI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만들었던 강제 수용소로, 폴란드의 오시비엡침(Oswiecim)에 위치해 있었으며, 독일이 세운 수용소 중 가장 크고 잔혹한 수용소였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된 사람은 약 110만 명으로 추산되며, 희생자 대부분은 유대인이다.” (UNESCO, 1979)

유네스코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나치에 의한 유대인 인종 학살의 현장이자 인류에 행한 극악한 범죄라는 점을 밝히는 명백한 증거(UNESCO, 1979)”라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아우슈비츠가 ‘사상의 자유와 영혼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 나치에 대항해 끝내 이긴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준 장소’이며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인간 존엄을 부인한 결과가 초래한 비극을 후세에게 전하는 장소’라고도 유산으로 삼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2016년, 수용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아우슈비츠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현지 해설가는 수용소 내의 장소 별로 발생했던 사건들을 관광객에게 설명하며 수용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달했다.

이는 나치가 저지른 공포와 잔악에만 초점을 맞춘 해석이 아니었다. 해설가는 수감자들이 견뎌야 했던 열악한 생활 여건과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관광객들이 각자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었다. 적절한 전시물 배치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을 가이드가 연출하고 설명하며, 방문객이 읽을 수 있는 설명 판넬까지 제공한 이 유산이 꼼꼼한 해석 전략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2. 필자가 생각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안 좋은 사례’는 무엇인가?

1980년, 등재 기준 1, 2, 3, 4, 6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로마 역사 지구 - 바티칸 시국의 유산들과 산 파올로 푸오리 레 무라 대성전(Historic Centre of Rome, the Properties of the Holy See in that City Enjoying Extraterritorial Rights and San Paolo Fuori le Mura, UNESCO, 1980)’ 안에 위치한 포로 로마노(Roman Forum)와 콜로세움(Coliseum)을 최근에 방문하였다. 이 유산은 아직 해석과 설명 전략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 곳에서는 정부와 여러 연구소 직원들이 두서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대부분은 유산에 원래 있었던 구조물에 대한 설명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유산의 파괴된 흔적에서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유산 잔해가 황폐하고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유산 보존의 어려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보존 관련 이론과 행위를 발전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이탈리아 보존 철학자 체사레 브란디(Cesare Brandi, 1906-1988)는 1939년에 전세계 보존 기관들의 본보기가 된 이탈리아 중앙복원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브란디는 원형의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복원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브란디는 원형 상태로의 완전한 복원보다는 더 이상의 훼손 또는 손상 없이 최소한의 개입 만을 통해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Madrid Alanis, 2020).

현재 이 유산에 대한 설명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개별 가이드들에 의해 제공된다. 부유한 관광객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술 사학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지불 능력이 부족한 관광객은 전문가의 설명 없이 정보 판넬을 읽으면서 스스로 정보를 획득해야 할 수도 있다. 가이드와 함께 스쿠터나 골프 보기를 타고 다니며 투어를 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생겨났다.

결론적으로, 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부족했던 이 곳에서의 설명 전략은 유산을 고대 유적의 집합체 그 이상의 깊은 의미로 전달하는 데 실패하였다.

3. 유산 설명에서 유산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가진 유산 전문가들은 역사적 장소를 복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유산 설명에서 이들의 역할은 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유산 보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유산 설명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설명 콘텐츠는 해당 유산의 역사적 의의와 사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세계유산은 한 시대에 머무르는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역동성과 변화의 장소이며 여러 세대의 공동체 생활이 축적된 곳이다. 내가 방문했던 최고의 세계유산들은 지역 거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곳들이었다. 세계유산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는 지속 발전해야 한다.

4. 유산 해석과 유산 설명의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

건축공학자인 나는 건축 유산(Built Heritage) 보존에 대한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석’은 세계유산의 역사, 중요성, 무결성 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식별하고 분석하며 정리하는 과정이다.

설명에는 해석이 제공한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방법론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유산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권리보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식별하며, 장소를 보존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에 혜택을 가져다 주기 위해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까지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Madrid Alanis, Y. (2020) An interpretation on the ideas of Cesare Brandi in the Theory of restoration (online). Available at: https://www.icrom.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20-05/conversaciones_07_04_madrid_eng.pdf (Accessed: May 8, 2023)

Memorial and Museum Auschwitz-Birkenau (2023). Website (Online). Available at: <https://www.auschwitz.org/en/> (Accessed: May 8, 2023)

Tryuk, M.. “Chapter 12. ‘You say nothing; I will interpret’: Interpreting in the Auschwitz- Birkenau Concentration Camp”. Translation and Opposition, edited by Dimitris Asimakoulas and Margaret Rogers, Bristol, Blue Ridge Summit: Multilingual Matters, 2011, pp. 223-243. <https://doi.org/10.21832/9781847694324-013>

UNESCO (1979), Auschwitz Birkenau German Nazi Concentration and Extermination Camp (1940-1945) (Online). Available at: <https://whc.unesco.org/en/list/31/> (Accessed: May 8, 2023)

UNESCO (1980), Historic Centre of Rome, the Properties of the Holy See in that City Enjoying Extraterritorial Rights and San Paolo Fuori le Mura, (Online). Available at: <https://whc.unesco.org/en/list/91> (Accessed: May 8, 2023)

✦ 작성자: 닐 실버만(Neil Silberman)

1. 필자가 생각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모범 사례’는 무엇인가?
2. 필자가 생각하는 유산 해석과 설명의 ‘안 좋은 사례’는 무엇인가?
3. 유산 설명에서 유산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올해 세계유산 설명 주제를 살펴보면, 유산 설명이 ‘좋다’ 또는 ‘나쁘다’로만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작년 논의에서는 유산 해석을 의미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유산에 대한 의미와 가치인데, 개인 연구, 감상, 감정적 참여 또는 갑작스러운 인지를 통해 개인들이 내적으로 의미를 깨닫게 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설명’이다. 마누엘 간다라 교수가 사용한 ‘해석 전달 수단’이라는 표현이 딱 알맞은 것 같다.

해석과 설명 간의 용어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세계유산의 의미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외부로의 표현이 커뮤니케이션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은¹⁾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의 명확한 요소, ‘매체’와 ‘메시지’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한다. 매체는 구두 언어, 문서화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제스처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매체의 효과성은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맥락, 해석자의 의도, 청중의 문화적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https://www.g2.com/articles/communication-theory>, May 7, 2023

마찬가지로 **메시지**도 다양한 양상을 띤다. 사실적 또는 감정적, 명시적 또는 암시적, 자민족중심적(ethnocentric) 또는 보편적, 그리고 윤리적이거나 부당할 수 있다. 이렇듯 특정 세계유산 설명의 효과성을 평가 또는 강화하는 데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 또는 ‘나쁘다’라는 이분법적 척도를 통해 설명을 단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유산 설명의 매체와 메시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¹⁾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기초가 되는 모델 중 하나인 라스웰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다 (Lasswell 1948):

물론 매체와 메시지는 상호 의존적이고 복잡한 관계이다. 매체는 메시지가 인식되고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메시지의 대상 청중은 메시지 내용 자체보다도 설명에 적용된 다양한 전략 또는 디자인(글로벌 광고 업계가 그렇듯)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유산 설명에 대한 논의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령,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여 그룹 간 문화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은 떨어져도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가 급속도로 퍼져서 효과성 측면에서는 더 뛰어날 수도 있다(Chenzi 2021). 반대로, 디지털 접근성이 제한된 사람들은 미숙한 온라인 기술 활용 역량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이고 유익한 설명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다(Robinson et al. 2020).

특정 매체를 능숙하게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메시지의 의도를 반드시 무력화하는 것인가? 유산 설명은 더 이상 유산 관리자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텍스트 판넬, 인터랙티브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문 현장 해설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와이파이 접근성과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장 방문객 수를 훨씬 웃도는 전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다(Freeman 2018). 소셜 미디어의 ‘해석 전달’ 수단으로써 영향에 대해 최근 진행된 분석은 디지털 시대에서 직면한 해석과 설명에 대한 도전과제를 보여준다(Maniou 2021).

따라서, 유산 설명을 ‘좋다’ 또는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인 분류 또는 정보의 ‘사실성’에만 중점을 둔 접근방식보다는 유산 설명의 정의와 모범 사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세계유산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효과적이고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와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Freeman and Zaradona 2021).

◆◆ 참고문헌

- Chenzi, V. 2021. Fake news, social media and xenophobia in South Africa, *African Identities*, 19:4, 502–521.
- Freeman, C. G. 2018. The implications of online connectivity for world heritage in a digital platform society. *Historic Environment*, 30(3): 84–95. <https://search.informit.org/doi/10.3316/informit.484816983983692> accessed May 7, 2023
- Freeman, C. G and Zaradona, J.A.G. 2021. Digital spectres: the Notre-Dame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7/12: 1264–1277.
- Lasswell, H. D. 1948.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Pp. 37–51 in L. Bryson (Ed.), *The communication of ideas* (pp. 37–51). New York: Harper and Row.
- Maniou, T.A. 2021. Semantic Analysis of Cultural Heritage News Propagation in Social Media: Assessing the Role of Media and Journalists in the Era of Big Data. *Sustainability* 13(1): 341–344. <https://www.mdpi.com/2071-1050/13/1/341/pdf> accessed May 7, 2023.
- Robinson, L., Schulz, J., Blank, G., Ragnedda, M., Ono, H., Hogan, B., Mesch, G.S., Cotten, S.R.,

Kretchmer, S.B., Hale, T.M. and Drabowicz, T. 2020. Digital inequalities 2.0: Legacy inequalities in the information age. *First Monday*, 25(7). https://ora.ox.ac.uk/objects/uuid:ac36d8d5-cd59-4871-ab30-7925b6714243/download_file?safe_filename=Digital_inequalities_2.0__Legacy_inequalities_in_the_information_age.pdf&file_format=pdf&type_of_work=Journal+article Accessed May 7, 2023.



2차 회의 의견서

✦ 작성자: 닐 카말 차파가인 (Neel Kamal Chapagain)

1. 회의 후, 유산 설명에 대한 요소는 무엇이든 생각하는가? (예: 메시지, 매체, 접근성, 커뮤니티 등)

두 개의 회의를 통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설명/메시지'를 해독하는 과정과 결과물, 유산 설명에 참여하는 동기, 유산 설명을 지원하는 환경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산 설명을 다음 요소들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방문객의 참여 동기, 유산을 설명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원 환경, 메시지 (해석의 결과물), 매체, 방문객/청중의 설명에 대한 해독/이해, 피드백 루프 등이다. 동기와 해석(decoding)이 별개의 요소로 간주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설명 과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영향/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하다.

지난 회의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을 두 개의 독립적인 활동으로 볼지, 또는 중복된 영역들이 있는 활동들로 볼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는 위에 명시된 요소들이 유산 해석 또는 유산 설명에만 관련되는지 아니면 둘 다에 관련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 요소들은 유산 해석/설명 과정의 일부 단계들인가? 아니면 해석/설명 과정 중에 활용되는 도구인가? 이 질문들도 회의가 끝난 후 떠올랐는데, 내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다.

2. 유산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방문자 시설과 이에 대한 관리가 유산 설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위에도 언급했듯이, 방문자 시설은 의미 있는 유산 설명 경험을 위해 필요한 환경이라 생각한다. 방문자 참여를 촉진하는 기본 시설 ('장애를 가진' 방문자를 위한 시설도 포함)이 부재하다면, 방문자들은 설명에 참여를 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가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즉,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설명이 시작되자마자 혹은 설명 과정 중간에 유산 방문을 마무리해야 할 수도 있다. 방문을 계속하더라도, 특정 시설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설명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거나

설명을 즐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설에는 화장실, 식수, 휴게 공간 또는 그늘, 적절한 보행로 또는 방문자 접근 및 이동 시설, 안전 기능 등이 포함된다. 시설은 메시지 또는 설명을 방해하지 않고 유산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히 계획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간과 자원이 제한된 유산의 경우에는 특정 시설의 설치를 유산 설명의 기본 규칙 또는 책임으로 확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해당 유산에 시설을 설치하면 유산 가치나 경험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의무화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유산의 경우, 방문객들이 미리 기본 시설 부재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고 애초부터 유산을 해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일 수 있다. 접근성과 공평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유산 설명 또는 방문 시설을 따로 개방하지 않는 것이 유산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유산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시도를 피하기 위함이다.

3. '유산 해석' 정의 초안에 따르면, 유산 설명이 '일방적 소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상기 인용된 정의 초안에서, 유산 설명이 일방적인 소통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유산 설명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에, 방문객들은 독립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의도한 대로 해석과 설명 과정을 따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오늘날의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는 방문객들도 공식적인 유산 설명에 도전을 제기하며 본인만의 유산에 대한 이해를 주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산 (해석)과 설명이 여러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자칫 유산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특정 기관의 자원이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유산 설명이 불가피하게 일방적 소통으로 끝나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인 우리는 유산 설명이 '여러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있는 것은 좋지만, 다른 내러티브들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 자체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유산 해석과 설명의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정의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작년 논문에도 언급했듯이, 유산 해석이 주요 전문적 또는 개인적 활동이며, 유산 설명은 해석 과정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한다. 유산 설명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선택적으로 설명할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해석의 하위 과정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산 설명은 주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허용 또는 제한하는 조건이나 프레임워크에 따라 대화의 여지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

✦ **작성자: 최재현(Jae Heon Choi)**

1. 회의 후, 유산 설명에 대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 메시지, 매체, 접근성, 커뮤니티 등)

세계유산 설명의 주된 요소에는 (1) 대상 청중, (2) 전달할 메시지와 내용, (3) 내용을 전달할 방법(즉, 소통 수단, 미디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등 전달 환경)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유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유형 유산 또는 유산의 무형적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가치에 기반한 경험을 제공하거나 직접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면, 불특정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설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라면,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게 콘텐츠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세계유산에는 관련된 여러 공동체, 방문객과 관광객, 지역 주민, 공무원, 유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세계유산에 관한 콘텐츠를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적절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유산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방문자 시설과 이에 대한 관리가 유산 설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방문객 시설은 유산 공동체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유산과 유산 설명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가치 기반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유산의 위치, 환경, 재료, 물질, 무형적 측면과 같은 여덟 가지 진정한 구성 요소와 지역, 토착민,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인권, 지속가능성, 평화로운 공존, 지역 정체성, 기억 유산, 다양성, 회복탄력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유산의 보존은 지역 공동체의 가치 및 사회 활동에 대한 이해에 튼튼한 기반을 두며, 지속가능한 문화적 기반을 형성한다. 세계유산은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문화적 정체성과 차이를 인식하는 상호 이해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할 수 있다. 세계유산과 지역 공동체의 관계는 적극적인 참여, 윤리와 포용성이 상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3. ‘유산 해석’ 정의 초안에 따르면, 유산 설명이 ‘일방적 소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 유산에서 물리적인 접근, 방문자 루트, 가이드 투어 및 인프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교하게 계획된 공공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정의된다. 전문가가 방문자에게 공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단방향 의사소통 방식이다. 따라서, 정보 제공 판넬, 키오스크, 방문자 센터 등 공공 시설이 설명의 수단이다.

반면, 해석은 종종 설명과 큰 구별 없이 사용된다. 하지만 전문가가 설계한 설명과 달리, 해석은 유산에 대한 대중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잠재적 활동을 포괄한다. 방문자는 유산 설명 과정에서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지만, 해석 과정에서는 유산의 중요성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유산 해석은 지역, 국가, 그리고 민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의 갈등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갈등에는 민족 정체성, 원주민 인권 운동, 지역 독립 및 유산 통제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모든 지역 공동체가 하나의 보편적인 유산 해석 방법을 옹호하고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산 분야에 디지털 과학과 기술이 적용된 이후부터,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클라우드 소싱, 가상 환경과 같은 최첨단 분야가 유산 해석과 설명에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는 정보 생산자로서 유산 해석과 설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방문자들도 수동적인 정보 수신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역사적인 유산의 중요성을 반영한 그림, 사진,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지역 공동체의 해석 관점을 방문자 센터와 멀티미디어에 적용함으로써, 유산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또 다른 형태의 설명 수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해석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여 유산 현장에서 설명에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산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중점적으로 해석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즉, 유산 해석은 일반적으로 사람, 장소, 물건, 대상, 사건 간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는 오만, 편견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가 내세운 유산에 대한 민족적인 차이가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불씨가 되어 내전과 대학살로 이어졌다. 또한 남아프리카에서 민족 간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던 이념이 분열과 인종 차별을 야기했다. 따라서, 유산 해석과 설명에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의 축진이 되어야 하며, 반대로 반민주적 사고와 무정부주의적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

✦ **작성자: 사라 코트(Sarah Court)**

1. 회의 후, 유산 설명에 대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 메시지, 매체, 접근성, 커뮤니티 등)

해석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유산과 유산 관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유산 해석 전문가들은 유산 해석/설명 계획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논의해 왔다. 예를 들어, Brochu(2003)는 관리, 메시지, 미디어, 시장 및 방법을 강조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Slack(2020)이 '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졌다. 해석 전문가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했을 지라도, 유산 해석/설명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요소에 대하여 어느정도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유산 맥락에 적용될 수 있다:

- **OUV 및 기타 유산 가치:** OUV와 유산 가치는 주로 '메시지'로 전달되며, 세계유산이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이유를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OUV외에도 세계유산의 특수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 사람들 간 공유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른 유산 가치들도 탐구 되어야 한다.
- **속성:** 유산 가치는 문화 유산 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속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게 된다. 속성은 유형 또는 무형일 수 있으며, 프로세스와 연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산 경험을 위해 사람들이 유산의 어느 곳을 방문하여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 **주체:** 해석 계획에 참여할 주체를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권리 소유자나 관련 지역사회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해석 계획 시 누구를 위한 해석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유산 해석은 '모두'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집단 뿐만 아니라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덜 드러나는(under-represented)집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러한 집단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관객 개발 방법론(audience development)을 활용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주된 청중으로 식별된 집단들은 유산의 어느 가치와 속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와 이러한 측면을 해석하는 가장 적합한 언어와 계획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하게 된다. 또한, 특정 청중 집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설계하는 해석 계획 접근법도 있다.

- **관리 목적:** 유산 해석 시, 유산의 관리 목적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에는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이나 방문객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취약하거나 민감한 유산을 보존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또한 유산 해석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방문을 장려하여 티켓 매출을 올리고, 유산 보존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영적이거나 신성한 가치가 있는 자연 및 문화 유산에서는 유산 해석이 적절한 방문자 행동을 장려하도록 더욱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지속 가능한 개발/지역 공동체 목적:** 유산 해석은 지역 공동체가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이 잘 이루어진 유산 해석은 사회적 포용성과 안위를 촉진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지역 문화와 관행에 대한 방문객 인식 제고를 통해 지역 생활 방식을 보호하도록 설계될 수도 있다.

- **미디어:** 미디어를 통해 해석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가이드 투어, 공연 등 라이브 체험에서부터 정보 제공 판넬, 인터랙티브(interactive) 미디어, 앱 등 정적 미디어(static media)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미디어를 선택할 때에는, 어떤 가치와 속성을 강조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해석인지, 관리 팀이 이를 구매하고 유지할 예산이 있는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해설가나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소재와 에너지 요건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옵션이 있는지 등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세부 계획:** 해석과 유산 방문, 활동 관리 측면에서 여러 세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산 내 보존해야 하는 민감한 자연 구역, 신성한 곳 또는 영적 장소가 있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유산 해석을 통해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유산의 다른 장소를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대신에,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방문객을 유치하여 이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관광객을 위한 부가적인 시설이 개발되어야 할 장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개발이 장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유산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2. 유산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방문자 시설과 이에 대한 관리가 유산 설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매슬로(Maslow, 1943)의 욕구계층이론은 많은 비판도 받고 이후 학자들에 의해 확장되기도 했지만, 인간 행동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예: 생리적 욕구, 안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산 해석의 경우에도, 방문자 시설이 방문자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지 않는다면(예: 화장실, 식수, 그늘 등) 사람들이 유산에 집중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Beck & Cable 1998). 따라서 해석 계획 시에는 방문자가 유산에 도착하고 방문을 마칠 때까지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몇몇 유산 해석 전문가(예: Brochu, 2003)는 방문자 시설이 해석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며, 모든 방문자 시설을 계획할 때 방문자의 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3. '유산 해석' 정의 초안에 따르면, 유산 설명이 '일방적 소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유산 설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코모스 에나메 현장(2008)에서는 설명을 '계획된 해석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현장 유산 관리자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의이다. 하지만, 많은 유산 해석 전문가들은 이것과 유사한 정의를 '해석적 계획'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고(예: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2000), Veverka (2015), Enright (2016) 등) '설명'의 의미는 더 좁혀서 표준 사전 정의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보여주거나 전달한다'로 정의할 것이다.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전달한다'는 후자의 정의는 설명이 수동적인 청중에게 제공되는 일방적인 과정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코모스 현장에서 '설명'이 해석적 계획과 동일한 의미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설명이 메시지의 일방적인 전달을 넘어 다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해석/설명은 전문가들 간의 지식 공유를 넘어 사람들이 유산과의 경험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다들 동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과 '설명'을 구분 지으려는 시도보다는 유산 관리자와 해설가들 간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이든, WHIPIC은 자체적인 정의를 작성할 때 현재의 유산 해석과 설명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정의도 고려해야 한다. 해석과 설명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접근은 유산 해석과 보존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참고문헌

Beck, L. and Cable, T. (1998) Interpretation for the 21st Century: Fifteen Guiding Principles for Interpreting Nature and Culture. Champaign: Sagamore Publishing.
 Brochu, L. (2003) Interpretive Planning. The 5-M Model for Successful Planning Projects. Fort Collins: InterpPress.

Enright, D. (2016) What is interpretive planning? [online]. Available from: <https://www.donenright.com/what-is-interpretive-planning/>
 ICOMOS (2008)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Paris: ICOMOS.
 Maslow, A.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National Park Service (2000) Comprehensive Interpretive Planning. Washington, DC: NPS.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Presentation,' in Oxford Learner's Diction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lack, S. (2020) Interpreting Heritage: a guide to planning and practice. Abingdon: Taylor & Francis.
 Veverka, J. (2015) Interpretive Master Planning. Edinburgh: Museums Etc.

◆ 작성자: 마누엘 간다라 바스케스 (Manuel Gándara Vázquez)

1. 회의 후, 유산 설명에 대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 메시지, 매체, 접근성, 커뮤니티 등)

'설명'은 어느정도 '해석 전달'과 유사하게 간주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설명 과정은 해석 설계 또는 포괄적인 계획 단계에서의 요소들을 포함할 것이다:

1. '전반적인 목표 또는 목적'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왜 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지(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뿐만 아니라 현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잠재 청중에게 어떻게 유용하고 매력적인지, 보존 문화를 어떻게 촉진하고 지속가능성, 평등, 포용성, 문화 다양성 증진, 평화 촉진을 중심으로 2030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명시한다.
2. 문화적 배경(모국어 포함) 측면에서 잠재 청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해석 사업에 텍스트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대상 청중의 평균 독해 능력을 고려한다.
3. '주제' 또는 '중심 아이디어': 과학 연구, 유산 평가문서, 지역 공동체의 기여(있는 경우) 토대로 추출한 전달하려는 주요 메시지와 몇 개의 부수적 주제
4. 가능하면 서사 구조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 내러티브를 생성한다.
5. 방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절 변화와 같은 미디어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인프라 및 맥락/환경 요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6.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디지털이나 온라인 미디어와 같이 최대한 많은 청중에게 접근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대면 또는 디지털 매체 활용)을 선택한다.

7. 일반적인 인구 통계 프로필과 만족도 평가 이외의 평가 도구들: 유산 분야는 포크와 스토크스다이크(Falk & Storksdieck, 2005)의 '개인 의미 지도(personal meaning map)', 햄(Ham, 2013:120)의 '생각 목록 (Lists of Thoughts)', 웨이파인딩(wayfinding) 평가 등 여러 평가 도구들(Gándara y Pérez 2019)을 세계유산에 성공적으로 적용해왔다.
8. 계획 과정에 대하여 지역 공동체 대표 구성원 초점 집단 인터뷰를 진행한다. (지역 공동체가 있는 경우)
9. 시범 조사 또는 시범 운영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10. 방문자를 위한 피드백 메커니즘 - 디지털 미디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현하기 쉽다.
11. 첫 실제 수행 이후, 전반적인 경험과 형성 평가(formative evaluation)를 문서로 정리한다.

2. 유산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방문자 시설과 이에 대한 관리가 유산 설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1990년대 멕시코에서는 건축가들이 '파라도르(paradore)'를 유산에 많이 지었다. 스페인어로 '호텔'을 의미하는 파라도르는 외관상 매력적이고 실용적이었지만, 여기에 유산 해석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부 장소에는 '현장 박물관'이 있긴 했는데 전통적인 수집품 중심의 박물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적용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즉, 기술적 용어와 백과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가 주로 제공되었으며 유산에 대한 방문자 이해 증진을 위한 '해석 센터' 또는 '방문자 센터'의 개념은 부재하였다(Gándara & Pérez, 2017).

방문객들은 '피라미드'를 보러 온 것이지, 박물관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관광 안내자들이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시각화 자료는 유산의 건축 모형이었다. '파라도르'가 방문자들에게 편안하고 청결한 화장실, 충분한 주차 공간, 레스토랑 및 기념품 가게를 제공하여 방문 경험에 기여하긴 했지만, **유산 해석적인 요소는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충분한 편의시설, 특히나 방문객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편의 시설들은 더 없이 환영하지만, 이것들은 유산 해석을 위한 전제 조건 또는 설정인 것이 최선일수 있다. **시설 개발**은 방문 경험을 활성화하는 요소이지만, 해석 사업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적어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건축가, 산업 설계사, 조경사들이 계획하며, 유산 해석 전문가의 참여는 일반적이지 않다.

3. '유산 해석' 정의 초안에 따르면, 유산 설명이 '일방적 소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설명'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위에 언급한대로, 설명을 '해석 전달'과 동의어로 본다면, 전달 메커니즘에 따라 설명도 달라질 것이다. 해석 가이드는 대체로 양방향(통신 용어로는 전이중 통신(full duplex))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다. 즉, 방문자와 유산 해석 전문가들이 대화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 물론, 방문자가 중간에 끼어들고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싫어하는 권위 주의적인 가이드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향식(top-down) 소통 방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부적절한 훈련으로 인한 좋지 못한 유산 해석의 사례일 뿐이다.

미국 국립공원에서 인기를 얻은 '대화적 모델(dialogical model)'이라 불리는 해석 방식은 때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지 않다면 미리 사과 드린다.) 이 모델은 대화를 통해 청중이 정보 안내 없이 오로지 '사색'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거나 '창조'할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이다. 이 접근 방식은 특정 장소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지정된 이유가 방문객에게 자명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방문객의 사색과 발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한 유산 해석 분야가 발전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또한,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있는 유산에서는 예산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각 방문자 그룹에 개인 대화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델은 멕시코에서는 포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멕시코의 5개 유산에서 진행된 연구(Gándara & Pérez, 2019)는 '가치가 자명하다'는 전제가 틀렸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방문자의 유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즐거움의 깊이나 보존에 대한 헌신은 해석 사업이 실패할 경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유산 해석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비교했을 때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동료 고고학자들과 유산 당국을 설득하는 과정은 매우 길고 힘들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문자들이 '잘 준비된 상태'로 와야 한다고 하며, 유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전문가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감사하게도 WHIPIC, ICCROM, GAHI(Global Allegiance for Heritage Interpretation) 전문가들과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유산을 설명하는 방식이 일부에게는 '권위적이고 단방향'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하향식 소통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 설명 방식은 '양방향'이면서 상호작용적(interactive)이어야 한다.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겠다. 첫째는 '양방향'이라는 방향성이다. 전통적으로, 대면 유산 해석만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렇게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대면 해석만을 '유일한 실제 해석'이라고 여기며, 간접 해석(mediated interpretation)은 일방적이라는 이유로 경멸한다. 이것이 유효한

기준이라면, 모든 해석은 유산 현장에 있는 해설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두번째 ‘인터랙션(Interaction)’과 ‘인터랙티비티(Interactivity)’ 간 용어 구분과도 관련 있다(Gándara, 2020). 인터랙션은 Crawford (2003)에 따르면 상대방 발언을 ‘듣고, 처리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간의 직접적이고 동시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전화나 요즘 자주 사용하는 Zoom 화상 회의처럼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만남도 가능하지만, 동시성이 요구되는 상호작용이다.

두 번째로, 인터랙티비티는 적어도 1980년대부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통신하는 두 대상 중 하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대화 형태이다. 디지털 내부 콘텐츠와 코드(알고리즘 및 데이터 포함)와 디지털 기기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표현되는 사용자(실제 사람)와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간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여기서 실제 상호작용이 발생하려면, 두 대상 모두 ‘듣고, 처리하고 반응’해야 한다. 따라서 가상의 대상도 인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출력 시스템, 처리 장치, 작업 메모리, 장기 저장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디지털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은 자주 혼동된다. 한 스페인 학자는 박물관 전시 레이블이 독자의 처리과정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인터랙티브(interactive)’라고 주장한 바 있다. (Santacana & Martín, 2010) [검토자 Gándara, 2013] 만약 전시 레이블이 잘 설계되었다면 이러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레이블 자체는 (적어도 최근까지는) 사용자 발언을 듣거나 처리하거나 이에 반응할 수 없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것이야말로 단방향 통신 매체이다. 물론 최근에는 방문자가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웹 페이지, 소셜 미디어에 따라 이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였다. 질문에 답하자면, 대면 유산 해석 이외에 대부분의 다른 해석은 단방향 의사소통 형태이다. 물론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디지털 격차’가 초래되고 완전한 포용성에 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완전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의 인터랙티브 기기(오디오 또는 멀티미디어 가이드)를 개발하거나 이러한 기기를 제3자가 후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권장된다.

아마도 이 질문의 의도는 유산 해석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과 같이, 박물관 안내원이 방문객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낭송하는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 묻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권위 주의적인 ‘하향식(top-down)’ 소통 방식이다. 소통 방식 설계에 대한 철학, 인식론과 교육론, 그리고 정치적 및 윤리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햄(2013) 등 필자들은 유산 전문가 역할은 대중에게 주입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들이 설명된 내용에 대해

스스로 사고하고 의미를 창출하며 자신만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유산 해석을 ‘주제별 해석(thematic interpretation)’이라고 부른다. ‘주제별 해석’은 권위주의적이지 않으며, 설명된 내용을 방문자들이 이해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전략에 대해 역설한 필자의 ‘의미 있는 공표(Meaningful Divulgation)’ (Gándara, 2021)에서는 세계유산 방문자에게 인지, 가치, 행동과 공간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설명되는 내용이 익숙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문 용어와 담론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로 다시 설명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방문자에게 유산 보존 노력에 기여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방문자들이 우리의 설명을 무시하고 싶다면 그것도 그들의 자유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방문객에게 항상 문화 유산 해석을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문객이 독립적으로 탐험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것이다. 방문객에게 완전한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엘리트적인 관점은 아닐까?

포스트모던 급진주의자들은 모든 교육 형태(학교 교육과 혼동됨)를 권위 주의적인 하향식 소통으로 여긴다. 이들에게 교육은 억압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요즘 교육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한데,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비판적 교육학 (Critical Pedagogy)’를 창시했던 브라질 교육학자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의 이론은 50년이 지난 지금 성차별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와의 대화를 통해 배우기도 한다. 즉, 교육을 받는 학습자도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를 가르친다. [...] 따라서, 두 사람은 둘 다 주체로서 함께 성장하며 이 관계 속에서 ‘권위에 의한 주장’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권위자 역할을 맡은 자는 자유에 반대하지 않고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자신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지도 않는다. 인간은 실제 세계를 매개체로 공동체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 (Freire, 2022) [스페인어, 저자가 직접 번역]

◆◆ 참고문헌

- Crawford, C. (2003) *The Art of Interactive Design: A Euphonious and Illuminating Guide to Building Successful Software*. San Francisco: No Starch Press.
- Falk, J. and Storksdieck, M. (2005) ‘Learning science from museums’, *História, Ciências, Saúde - Manguinhos*, 12, pp. 117-143.
- Freire, P. (2022) *Pedagogía Del Oprimido*. Tercera Edición. Siglo Veintiuno Editores.
- Gándara, M. (2013) *Reseña de ‘Interacción e interactividad: Manual de museografía interactiva’*,

Intervención, Año 4 (7), pp. 75-77.

Gándara, M. (2020) '¿EXISTE REALMENTE UNA MUSEOGRAFÍA INTERACTIVA?', Más Museos Revista Digital. Editada por L.F.F. Rico Mansard, 2(1), s/p.

Gándara, M. (2021) 'La educación patrimonial: los retos del patrimonio cultural', in Imágenes de Un Mismo Mundo: La Educación Patrimonial En Iberoamérica. Gerencia del Centro Histórico Patrimonio Cultural de la ciudad de Puebla. Puebla, pp. 147-163.

Gándara, M. y Pérez, L. (2017) 'Museos de sitio y centros de interpretación ¿Excluyentes o complementarios?', Gaceta de Museos, pp. 12-21.

Gándara, M. and Pérez, L. (eds.) (2019) 'Metodología para el diagnóstico de la comunicación en sitios arqueológicos y museos: un enfoque integral', Boletín de la Asociación Española de Amigos de la Arqueología, 49-50, pp. 53-77.

Ham, S.H. (2013) Interpretation: making a difference on purpose. Golden, Col.: Fullcrum.

Santacana, J. and Martín, C. (eds.) (2010) Manual de museografía interactiva. Gijón: Trea.

✦ **작성자: 마리오 산타나-퀸테로(Mario Santana Quintero)**

1. 회의 후, 유산 설명에 대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 메시지, 매체, 접근성, 커뮤니티 등)

'설명 경험'의 개념을 활용하여 유산 설명에 대한 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 설명 요소들은 이코모스 에나메 현장(2008)을 충족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음은 설명 요소들을 식별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동체: 유산 중요성과 식별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설명 경험에 대한 권리 보유자와 이해관계자는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활동 유형은 무엇인가?

비전과 학습 목표 정의: 특정 청중이 설명 경험 후 얻게 되는 학습 결과는 무엇인가? 권리 보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영역 범위: 세계유산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일부 지역만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설명 경험이 허용되는 영역은 어디인가?

대상 청중에 대한 정의: 설명 경험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중 참여 수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방문자가 유산에 체류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학습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대중 참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대중은 설명 경험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유산에 직접 방문하는가? 아니면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방문하는가? 디지털 방문과 대면 방문은 어떻게 서로 보완되는가?

사용 가능한 자원: 설명 경험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자원이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 유산에서 사용 가능한 물리적 시설과 디지털 자산의 유형은 무엇인가?

기관 역량: 설명 경험을 주최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 디지털 지식을 보유한 직원이 있는가? 설명 경험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직원 수가 충분한가? 또한, 설명 경험을 일정 기간 동안 설계, 이행 및 유지하기 위해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은 무엇인가?

피드백 메커니즘: 설명 경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예상 수명 주기: 설명 경험의 최적 수명 주기는 무엇이며 언제 업데이트가 필요한가?

또한, 이코모스 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국제헌(2008)은 '해석 인프라'를 '설명 경험을 위해 활용되는 모든 물리적 설치, 설비와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방문자의 온라인 유산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 플랫폼(또는 컨테이너)도 인프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유산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방문자 시설과 이에 대한 관리가 유산 설명의 일부이라고 생각하는가?

'설명 경험'은 전달 범위, 학습 결과, 전달될 메시지 내용 뿐만 아니라 '해석 인프라' (ICOMOS, 2008)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전략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산을 방문할 잠재적인 방문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유산이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자 시설의 유형**은 '방문자 프로필, 수요와 기대 수준'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McGuinness et al.,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방문자 만족도' 수준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세계유산 방문에 대한 온라인 경험을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촉진**해야 한다. 아직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페이스(Faith, 2017)의 박사 학위 논문은 세계유산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제시한다: '질적인 해석 방법론을 채택하여 광범위한 온라인 연구(페이스북, 웹사이트와 가상 관광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공식 문서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 풍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Faith, 2017)

또한, 유산에 대한 보존 계획을 준비하는데 활용된 여러 접근방식이 '설명 경험' 계획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게티 보존 연구소(Getty Conservation Institute)가 온라인 상으로 '임스 하우스 보존 관리 계획(Eames House Conservation Management Plan)'을 공개하였다(Burke et al., 2018). 공개된 계획은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단계들을 설명하였는데, 그 중 4단계(중요성을 유지 및 보존하는 정책 개발)는 유산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소유자와 사용자의 미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보존관리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다른 활동들에 참여할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포함시키는 전체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5단계).

임스 하우스 계획 106페이지 표 5.1에는 식별된 속성들이 나열되어 있고, 표 5.2에는 속성별 보존 조치가 서술되어 있다. **설명 경험 계획을 구상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과 보존 조치를 연결시켜 방문자에게 해당 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유산 보존을 촉진하는 접근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설명 경험은 방문자 기대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프라와 설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는 유산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물리적,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형태의 인프라도 포함된다.

3. '유산 해석' 정의 초안에 따르면, 유산 설명이 '일방적 소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 경험은 일방적 소통 채널이 아닌 다중적 소통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유산 해석이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의미 형성 과정이라는 정의에 동의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 방식 및/또는 시설에 대해 방문자가 의견을 남기고 제안할 수 있는 간단한 피드백 메커니즘인가? 아니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완전히 통합된 프로세스인가? 또한, 직접 및 간접적인 참여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의미 형성 과정'에 대한 명확한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버라 헌장(Burra Charter, ICOMOS 호주)'은 1단계가 '가치', 영향을 미치는 요소, '상황 변화' 요소 파악을 기반으로 '장소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버라 헌장 제13조에는 '문화적 가치의 공존은 항상 인정, 존중, 격려 되어야 한다. 문화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포용적인 설명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하다.

버라 헌장 제13조는 윤리적 원칙과 관행에 관한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ICOMOS 호주(1998) '유산 보존에서 공존 윤리에 관한 규정(Code on the Ethics of Co-existence in Conserving Significant Places)'에 바탕을 둔다. 이 규정은 '공동 책임', '다원적 사회'와 '유산 해석에서의 잠재적인 갈등'에 대해 언급하며, '가치의 의미', '문화적 집단', '중요성', '갈등', '분쟁'과 '갈등 해결'과 같은 주요 개념을 제시한다. 이 모든 요소들은 지역사회 참여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코모스 에나메 헌장(2008) 채택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인 2006년에, Araoz는 '해당 장소와 관련된 사건의 연관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파악되지 않은 경우와 장소의 평범한 외관, 시각적 세부 요소, 미적 단서가 장소가 왜 유산으로 분류되는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진술은 세계유산의 OUV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설명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 참여와 더불어, ICOMOS 부에노스 아이레스 선언에서는 공동체와 권리보유자의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선언에서는 공동체와 권리보유자가 '문화유산의 식별, 선택, 분류, 해석, 보존과 보전, 발전과 관리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한다(ICOMOS, 2018).

필자의 의견으로는, 유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방적 소통'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관행이다.

◆◆ 참고문헌

Araoz, G. "Some Background Musing on the Need for an ICOMOS-Ename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The George Wright Forum, Vol. 23, No. 1 (2006), pp. 40-43 (4 pages).

Burke, S., Somerville, J. Ostergren, G. Matarese, L. and McCoy, C. (2018) "Eames House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online). Retrieved from: https://www.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_resources/pdf_publications/eames_cmp.html (Last accessed: June 13, 2023)

Faith, Gemma. "Evaluating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in Online Spaces and Its Potential to Prime the Development of Eco-Cultural Tourism Experiences (Virtual and Onsite) : a Case Study on Pimachiowin Aki, Canada's First Mixed World Heritage Site."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2022.

McGuinness, Vanessa, Kate Rodger, Joanna Pearce, David Newsome, and Paul F.J. Eagles. "Short-Stop Visitation in Shark Bay World Heritage Area: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Ecotourism* 16, no. 1 (January 2, 2017): 24-40. doi:10.1080/14724049.2016.1194850.

ICOMOS. "Buenos Aires Declaration: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018). (online). Retrieved from: https://www.icomos.org/images/DOCUMENTS/Working_Groups/AGA2018_BuenosAiresDeclaration_EN-FR-ESP_final.pdf (Last accessed: June 15, 2023)

ICOMOS, "Ename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2008). (Online). Retrieved from: https://www.icomos.org/images/DOCUMENTS/Charters/interpretation_e.pdf (Last accessed: June 15, 2023)

ICOMOS Australia (2013). "The Burra Charter Process: Steps in planning for and managing a place of cultural significance" (online): Retrieved from: <https://australia.icomos.org/wp-content/uploads/The-Burra-Charter-flow-chart.pdf> (Last accessed: June 13, 2023)

ICOMOS Australia (1998). "Code on the Ethics of Co-existence in Conserving Significant Places" (online). Retrieved from: <https://australia.icomos.org/wp-content/uploads/Code-on-the-Ethics-of-Co-existence-in-Conserving-Significant-Places-1998.pdf> (Last accessed: June 13, 2023)

✦ **작성자: 닐 실버만(Neil Silberman)**

1. 회의 후, 유산 설명에 대한 요소는 무엇이든 생각하는가? (예: 메시지, 매체, 접근성, 커뮤니티 등)

이번 전문가 회의는 설명의 요소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여전히 논의 중인 항목이기는 하지만 해석과 설명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인상적이었다.) 이전에 내가 설명했던 것과 같이, 설명의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것만큼 각 구성요소가 세계유산에 대해 윤리적(ethical) 또는 계몽적(enlightening) 설명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역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유산 설명에 대해 다음 구성 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

1. **매체:** 소통 채널로 대면, 그래픽 텍스트,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매체는 설명의 '표면'이며 매체 선택(극적 매체, 디자인, 이야기 또는 기술적 매체)은 세계유산이 방문자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특정 매체를 잘못 선택하면 때로는 부정적이거나 수용하기 힘든 사회적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으며, 특정 설명이(또는 유산 그 자체도) 등한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 **메시지:**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가치 또는 사실이다. 문화적 소통의 다양한 측면처럼, 품질, 신뢰성 등 메시지의 요소는 다양하다. '나쁘다' 또는 '좋다'라는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메시지의 목표(교육, 애국, 관용, 포스트 식민주의 등)에 따라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3. **커뮤니케이션 모드:** 유산 해석 전문가와 방문객/이해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음성,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통해 전달된 독백 형식(세 번째 질문에서 말하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던가? 또는 해석 전문가와 방문객/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단일 해석 경험에 여러 관점을 포함시킨 다중 대화 형식이었던가? 설명이 단순한 진술 형태인가 아니면 과거에 대한 문화 간 또는 개인 간 논의를 촉진하고 심사숙고하게 하는 역할인가? 다시 말하지만, 유산 해석이 평가될 수 있는 또 다른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다.

4. **접근성:** 설명의 접근성은 모든 신체 및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경사로, 난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접근성 요소를 넘어선다. 지금까지 신체 및 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인 '진동 점자' 터치 스크린과 점자 설명 라벨 등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설명의 접근성은 모든 사람이 설명 또는 전시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깊은 접근성(Deep Accessibility)'의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깊은 접근성은 이동의 편의성, 감각 처리, 탐색의 용이성, 의사소통의 명확성, 설명에서 흥미로웠던 부분 선택 등을 포함한다. 깊은 접근성(Deep Accessibility)에 대한 개념은 접근성 이론가인 이안 포드(Ian Ford)가 창시한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https://ianology.wordpress.com/2013/09/06/deep-accessibility/>

5. 필자 또한 기획 단계부터 제작 단계, 검토 및 수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역 공동체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적극적인 대중 참여는 언제나 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유산 해석에 지역 가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2. 유산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방문자 시설과 이에 대한 관리가

유산 설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보고 처음에는 화장실, 식수대, 야외 테이블 등은 유산 해석과 설명의 일부이기 보다는 부대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기 및 수도 설비, 티켓 부스, 조경 공간, 주차장, 도로는 건축 설계사가 짓고 유산 직원이 관리하는 유산 기반시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해석 경험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세계유산 부대 시설의 물리적인 품질이 해석 경험의 품질과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모든 해석 전문가들이 인프라 요소를 가장 효율적인 곳에 설계하고 배치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 계획자들이 설계 계획 과정에서 인프라가 계획된 해석 산책로나 기타 설명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산 보존과 보호가 구조물(fabric)에서 유산 경계(boundary)까지 확장되고, 세계유산의 경우에는 완충구역(buffer zone)까지 확장되는 것처럼, 유산의 특정 요소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로이다: 유산의 특정 요소에 대한 설명이 확장되어 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해석과 유산 방문에 대한 상대적인 편안함과 어려움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마리오 산타나 쿼테로가 언급한 것처럼 규모가 큰 유산도 있고, 작은 유산이 있으며 각 유산마다 운영 예산과 상황이 다르다. 물리적인 편의 시설을 짓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방문자의 해석 경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문자 시설을 넓은 맥락에서 '유산 설명'에 포함시켜야 되는지는 확신이 없다.

3. '유산 해석' 정의 초안에 따르면, 유산 설명이 '일방적 소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내 생각에 '일방적 소통'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선 설명과 '일방적 소통'의 연관성을 재조명해야 한다. 질문에 간단히 답부터 하자면, 일방적 소통의 형태인 유산 설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설명도 있다. 이코모스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국제헌장(2008)이 작성되던 시기만 해도, 설명(가이드 스크립트, 텍스트 패널, 해석적 방문자 루트 등)은 공인된 유산 관리 기관의 산물이라 여겨졌다. 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방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방문자 참여나 대화는 주요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방문자들이 질문하면 정중히 답해주기 하였으나,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는 아닌 경우가 많았다. '일방적 소통'이라는 용어의 쓰임은 로라제인 스미스(Laurajane Smith)의 '공인된 유산 담론(The Authorized Heritage Discourse)'과 유사하다. 이는 방문객의 재미와 흥미를 얼마나 돋우든지 간에, 공인된 기관이 '사실'을 전달하는 소통 방식이었다. 독백의 성격을 띠는 소통 방식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1)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포용적인 태도가 강해졌고, 2) 인터넷과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설명은 더 이상 공인된 유산 기관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거의 누구나 세계유산에 관한 웹사이트나 틱톡(Tik Tok)을 만들고 관련 사진이나 댓글을 게시할 수 있다. 더 많은 '설명'이 생겨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전히 많은 경우에 그러한 설명 방식이 '일방적' 정보 전달의 형태이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이 게시된 항목에 동등한 위치에서 답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를 감안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설명은 전통적으로 일방적 소통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유산 설명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따라서 유산 설명의 정의를 일방적이냐 양방 대화형이냐 이분법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일방적이고 양방 대화형인지 스펙트럼으로 바라봐야 한다.



3차 회의 의견서

✦ 작성자: 닐 카말 차파가인 (Neel Kamal Chapagain)

1. 유산 내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유산에 관하여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두 가지 모두 유산 해석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유산 설명을 유산 해석의 하위 집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산에 관한 또는 유산 내 존재하는 모든 해석이 유산 설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유산에 대해 알려진 모든 정보(가치 포함)가 유산 설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산 설명에 포함될 내용과 포함되지 않을 내용을 고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 과정도 유산 설명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유산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유산 설명을 위해 큰 범주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치와 맥락 정보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산 밖에서 진행되는 유산 설명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유산 설명은 방문객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 증진을 위해 유산 안팎에서 활용할 해석 자료를 선택하고 적용시키는 과정이다.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설명을 위해 다양한 매체와 접근방식을 선별하고 활용하는 것도 유산 설명의 일부이다.

2. 모든 유산 설명이 유산 해석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유산 해석 없이 유산 설명이 수행 가능한가?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와 '아니다' 둘 다이다. 기존에는 유산 설명이 유산 해석에서 비롯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에, 실제로 많은 경우에 설명이 해석을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질문의 의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거라면, 유산 설명은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질문의 핵심은 유산 설명이 의도적으로 유산 해석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유산 해석 없이 문화 유산이 설명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산 해석의 목표와 필요에 대한 고려 없이 수행되는 유산 설명은 명확한 목적과 방법이 부족한 설명이 될 것이다. 즉, 유산 설명은 신중한 유산 해석 이후에 추구되어야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시간 또는 자원의 제약이 있거나 해석 계획이 없는 많은 경우에도 유산 설명이 특정

유산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수행될 수는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산 설명이 유산 해석의 하위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며, 유산 해석의 개념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 초안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를 두 세 문장으로 서술한다면?

유산 설명은 당시 유산을 위해 채택된 유산 해석 계획을 바탕으로 유산과 유산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나는 유산 설명을 유산 해석의 하위 과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유산 설명은 유산 해석이라는 더 넓은 맥락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특정 유산의 맥락과 필요에 따라 조정되고, 공간과 기술, 청중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유산 해석과 마찬가지로 유산 설명도 다양한 청중에게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해야 하며, 유산 가치 상승과 관리 측면에도 기여해야 한다.

✦ 작성자: 최재현(Jae Heon Choi)

1. 유산 내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유산에 관하여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유산에서 '설명할 내용을 선택'하는 행위는 유산 설명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개념은 유산 해석과 유산 설명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산 해석은 가치 기반 평가, 참여적 지향, 의미의 다중성, 문화다양성 이슈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접근법이다. 반대로, 유산 설명은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인 체계이다. 유산 설명에서는 설명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명하고 전달할 내용을 결정하고, 설명의 목적과 대상 청중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유산 설명의 목적이 유산 보존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라면, 대중 설문조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야 한다. 유산 설명이 교육 도구로써 활용된다면, 특정 교육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유산의 어느 요소를 설명할지 선택할 때에는 해당 유산과 연관된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유산에 내재된 고유한 가치와는 다를 수 있다. '유산에 관한 요소'에는 무형적 측면과 지역적인 관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산 내 요소'는 세계유산의 OUV와 연관된 요소일 것이다. 또한, '유산에 관한 요소'는 더 넓은 범위에서 진정성을 판단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2. 모든 유산 설명이 유산 해석 이후에 이루어지는가? 유산 해석 없이 유산 설명이 수행 가능한가?

유산 해석에는 유산의 특정 측면을 해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식별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다양한 유산 이해관계자와 공동체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 해석에도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다. 모든 유산 설명은 해당 유산에 대한 해석을 반영해야 한다. 유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유산 설명은 불완전할 것이다. 유산 해석은 가치, 매체 유형, 설명 전략을 포함한 설명 내용에 영향을 준다. 유산 설명 방식은 유산 해석 과정과 구분된다. 대상 청중과 설명 의도에 따라, 설명 내용에 대한 구성과 설명 방법은 매번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해석 계획이 설명 계획과 같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설명 목적과 청중의 특성에 맞게 설명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며, 유산 해석의 특정한 측면이 선택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3.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 초안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를 두 세 문장으로 서술한다면?

유산 설명은 공인된 기관이 유산과 유산 가치/속성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정보를 보급하는 전문적 과정이다. 선별 과정은 철저한 유산 해석을 기반으로 하며, 설명 목적과 대상 청중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정해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명 내용은 세밀하게 재구성되고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된다. 설명 목적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대중 인식을 높이는 것일 수 있다.

✦ **작성자: 사라 코트(Sarah Court)**

1. 유산 내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유산에 관하여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설명에 대중에게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라면, 설명될 정보와 설명 방식을 결정하는 선택 과정이 있을 것이다. 설명 내용, 설명 방식(예: 패널, 디스플레이, 가이드의 구두 설명 등), 이외 관련된 기술적 결정(예: 유산 패널에 사용될 재료, 그래픽 디자인 등)을 계획하는 단계가 있다.

설명에 유산 해석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해석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별개의 다른 행위이다. 해석 계획은 유산에 대한 설명 제공을 넘어서 사람들이 유산에 대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해석 계획에는 심리학, 교육, 커뮤니케이션 등 기타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고려까지도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해석 계획을 통해 유산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 선택’하는 결정이 더욱 신중하고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다(Ham 2013).

2. 모든 유산 설명이 유산 해석 이후에 이루어지는가? 유산 해석 없이 유산 설명이 수행 가능한가?

‘해석’은 유산 정보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지식화 하려는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세계유산에 대한 해석이란 유산 전문가, 학자 또는 다른 전문가들이 구할 수 있는 증거들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수행되며 유산 해석과 설명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유산에 대한 본인의 의미 형성 과정을 통해 유산과 관련된 경험을 촉진하는 방법론인 ‘유산 해석’이라는 구체적인 활동과는 다르다.

유산 정보에 대한 설명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사람과 유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설명이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설명의 목적 자체는 경험 형성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주로 비공식적 또는 비형식적 학습으로 간주된다. ‘유산 해석’은 설명에 영향을 주는 선행 단계이지만, 모든 설명 사례에 ‘유산 해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3.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 초안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를 두 세 문장으로 서술한다면?

유산 설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정보, 특히 자연과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공유하는 방식이다. 유산 설명은 비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학습 환경에서 정보 전달을 위한 다양한 동적/정적 매체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이 제안된 정의는 설명을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단방향 소통 방식은 교육/학습 활동에서 자주 발견되며, 세계유산협약 제27조에 언급된 교육 및 정보 사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프리먼 틸든(Freeman Tilden) 과 다른 학자들이 주장한대로, ‘정보는 해석이 아니다. 해석은 정보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정보와 해석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해석의 목적은 가르치기보다는 자극하는 데 있다.’ (Tilden 2007: 44, 59; Beck & Cable 1998: 21, 39). 이러한 관점에서, 유산 해석은 설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세계유산협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해석은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 및 보존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전승시키고 (제4조), 문화 및 자연유산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5조),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대중 인식과 존중심을 높이는 데 (제27조) 기여한다.

이러한 이유로 두 가지 활동 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여 해석과 설명이 서로 대체 가능한 개념이 아니고 각각의 강점을 활용해야 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 해석의 보다 넓은 목표는 설명과 관련된 교육/학습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산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해석은 세계유산에 대한 포용성과 지역 사회의 안위를 증진시키며, 사람들의 유산에 대한 존중심과, 지속적인 활용과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참고문헌

Beck, L. and Cable, T. (1998) Interpretation for the 21st Century: Fifteen Guiding Principles for Interpreting Nature and Culture. Champaign: Sagamore Publishing.
 Ham, S.H. (2013) Interpretation: making a difference on purpose. Golden CO: Fulcrum Publishing.
 Tilden, F. (1957/2007) Interpreting Our Heritage. 4th ed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nline]. Available from: <https://whc.unesco.org/en/conventiontext/>

◆ 작성자: 마누엘 간다라 바스케스 (Manuel Gándara Vázquez)

1. 유산 내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유산에 관하여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유산의 어느 부분을 선택하여 설명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유산 해석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정확히 말하면,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 속한다. (적어도 세계유산 설명, 즉 기관 해석의 경우에는 그렇다.) 해석적 상호작용을 통해 선택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유산 설명'인데, 이는 유산 해석과 별개가 아니라 다른 기관 또는 매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산 해석의 두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산 설명은 유산 전문가(또는 지역 공동체 대표)에 의해 수행된 유산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기관 해석의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이론을 통해 다양한 추론을 도출해내는 전문가들이 수행한 유산 연구에 따라 유산 설명이 달라진다.

2. 모든 유산 설명이 유산 해석 이후에 이루어지는가? 유산 해석 없이 유산 설명이 수행 가능한가?

유산 해석 없는 유산 설명은 안타깝게도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유산 해석을 방문자를 위한 각종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산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 제공되어서 해석은 방문자들 스스로의 몫이 된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가에서 '유산 설명'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영역을 건축가, 조경 디자이너, 박물관 설계사 소관으로 간주한다. 많은 경우에, 유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들이 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며 안 좋은 경우에는, 유산 가치에 대한 평가에 직접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조언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 사례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치첸이트사(Chichén Itzá)의 성스러운 우물(Sacred Well Cenote, 세노테) 가장자리에는 작은 식당이 위치해 있다. 세노테 어디에서도 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초기에 식당 폐수가 세노테로 흘러 들어 왔다고도 주장한다. 이 식당을 건설한 의도는 유산 '설명' 방식 중 하나로 방문객에게 식음료와 화장실 시설을 제공하여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설명' 작업은 고고학자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건축가들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또한 유산을 책임지고 있는 멕시코 연방정부 기관인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도 건설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지역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여 정치/홍보 이슈로 부각된 적이 있다. 내가 알기로 유네스코는 이 문제에 대해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시설 건설에 대한 소식을 사전에 통지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3.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 초안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를 두 세 문장으로 서술한다면?

'유산 설명'은 현재의 유산 해석 이론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전에 소개된 용어로, 유산 해석에 대한 논의에서 서서히 사라져야 할 용어라고 생각한다. 메리만과 브로슈(Merriman & Brochu, 2006)가 처음 소개하고, 햄(1992), 너드슨, 케이블과 벡(Knudson, Cable & Beck, 1995) 등 여러 학자들의 시험과 시도 끝에 실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추후 이론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었지만 관통하는 핵심 원칙과 기법은 비슷하다. (예: Beck & Cable (2002); Colquhoun (2005); Ham (2013); Knapp, D. (2008); Larsen (2003); Morales (2001), Moscardo (1999))

계속해서 '설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스스로를 '유산 설명가'가 아닌 '유산 해석 전문가'라 칭하는 수천 명의 해석 전문가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유산 설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WHIPIC의 기관 책무인 것은 이해하지만, 유네스코가 유산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뿐만 아니라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원칙에도 설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ICOM이 '박물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놓았을 때 많은

박물관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정의에 대한 전면 개편을 요구했을 때 만큼 반응이 좋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따라서, 용어 간 연결성을 만드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처럼 '유산 해석 전달'이라는 문구 뒤에 괄호로 '유산 설명'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유산 해석 전달(유산 설명'이라고도 불림)은 상기 명시된 정의 초안의 정의대로 해석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유산 해석 단계 중 하나이다. 해석적 상호작용은 유산에서 개인 해설가 또는 해석적 매체, 또는 온라인 및 기타 동기/비동기 매체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추가 질문:

1) 다음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가?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해석 + 무언가'가 '유산 설명 + 무언가'로 대체될 수 있다.

예) '해석 계획 = 설명 계획'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산 해석이 설명보다 넓은 개념이며, 에나메 현장에도 나와 있듯이 '설명'은 해석의 두 번째 단계로 해석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해석 계획은 해석을 전달하는 과정 이상으로 해석에 대한 여러 측면을 포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산에서 OUV가 가장 잘 드러나는 위치의 변경 또는 해석 자료와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다음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가?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유산에서 '설명할 내용을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이다.

이 문장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주로 설명할 내용에 대한 선택은 해석의 최종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용어에 대한 혼동이 야기되는 이유는 실버만 박사가 한 세션에서 언급한 대로 유네스코의 '설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유산을 평가하는 유산 전문가들은 본인들 작업이 '유산 해석'이라고 생각하였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전달하는 물리적인 작업을 '설명' 단계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 정의는 유산 해석이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하고 관련 문헌이 대거 등장하기 전에 정립된 것으로, 현재 수천 명의 해석 계획가와 해석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유산 해석'과는 충돌이 있다. (이전 용어로 따지면 이들은 '설명가'로 불려야 한다.)

◆◆ 참고문헌

Beck, Larry, y Ted T. Cable (2002), Interpretation for the 21st Century: Fifteen Guiding Principles for

Interpreting Nature and Culture. Sagamore Publishing, Urbana.

Colquhoun, Fiona (2005), Interpretation handbook and standard: distilling the essence. Department of Conservation, Wellington.

Ham, S. (1992)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A Practical Guide for People with Big Ideas. Atlantic Books, Golden

Ham, S. (2013), 2013, Interpretation: A Practical Guide for Making a Difference on Purpose. Fulcrum Group, Golden, Co.

Knapp, D. (2008) Applied Interpretation: Putting Research into Practice.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pretation, Fort Collins.

Knudson, D., Cable, T. and Beck, L. (1995), Interpretation of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Venture Publishing, Inc., State College.

Larsen D. (ed.) (2003), Meaningful Interpretation: How to Connect Hearts and Minds to Places, Objects, and Other Resources. Eastern National/National Park Service. Washington, Pa.

Merriman, T. and Brochu, L.

2006 The history of heritage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Fort Collins.

Morales, J. (2001). Guía práctica para la interpretación del patrimonio : el arte de acercar el legado natural y cultural al público visitante (2. ed.). Junta de Andalucía. Consejería de Cultura: Tragsa.

Moscardo, G. (1999). Making Visitors Mindful: Principles for Creating Sustainable Visitor Experience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Sagamore Publishing.

◆ **작성자: 마리오 산타나-퀸테로(Mario Santana Quintero)**

1. 유산 내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유산에 관하여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설명 경험에 대한 전략은 설명 범위와 어떤 정보가 어떻게, 어디서, 언제 설명 될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무엇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속성에 대한 해석에 기반하여, 대중에게 '무엇'을 설명할지를 정의해야 한다. 또한, 유산의 어느 부분이 접근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어떻게: 대상 청중 (예: 방문 체류시간, 활용할 기술 - 인터랙티브 앱, 패널, 가이드, 스마트폰 앱 등), 유산에 대한 접근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 속성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는지(예: 구성 요소가 파괴되어 해석이 어려움) 등을 기반으로 설명 경험을 설계한다. 또한 방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문자 시설도 고려해야 한다. (예: 화장실, 쉼터, 편의 시설의 유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유산 어디서 설명할 것인가? 스마트폰 앱으로만 설명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언제: 설명 순서 뿐만 아니라, 환경적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위치한 문화 유산의 경우, 각 계절 별로 설명 경험이 매우 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명 경험의 전체 시간은 방문객(대상 청중)의 특성과 유산에 대해 전달할 메시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2. 모든 유산 설명이 유산 해석 이후에 이루어지는가? 유산 해석 없이 유산 설명이 수행 가능한가?

모든 설명 경험은 견고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전 회의에서, 해석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의하였다. 해석은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유산의 연대순 변화에 대한 이해, 고고학적 발견, 여러 사람 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3.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 초안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를 두

세 문장으로 서술한다면?

유산 설명은 유산 관리자들이 방문자에게 참여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산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적절한 설명 전략은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방문자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경우, 설명 전략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시키는 속성에 기반해야 하며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방문자들이 평화의 상징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유산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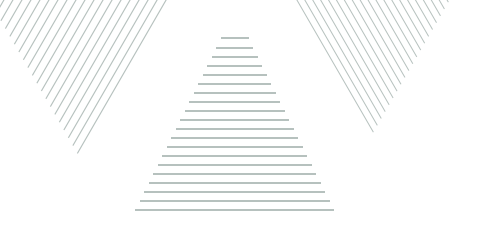
◆ **작성자: 닐 실버만(Neil Silberman)**

1. 유산 내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유산에 관하여 '설명할 요소를 선택'하는 것도 유산 설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모든 유산과 문화 유산에서 '설명할 내용을 선택'하는 과정이 유산 설명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설명 내용을 구성하기 전에, 유산의 어느 부분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 유산의 경우) 또는 기타 가치의 속성으로써 공개적인 논의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유산 관리자의 경우, 이 과정에는 매체를 선택(웹사이트, 텍스트, 해설자 스크립트, 인터랙티브 앱)하고 이를 유산 내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포함된다. '설명할 내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설명을 설계할 수 없다. 유산 설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정부 관료가 설명 내용을 선택했다라도, 그 선택은 설명 과정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택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대중 의견도 유산 설명에 반영되어야 한다. 작가가 실제 글쓰기에 착수하기 전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 지 먼저 결정 하는 것처럼 유산 설명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구성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2. 모든 유산 설명이 유산 해석 이후에 이루어지는가? 유산 해석 없이 유산 설명이 수행 가능한가?

설명에는 반드시 해석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석 없는 설명은 불가능하다. '쓰기 활동'은 유산 설명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쓰기'란 유산 해설가의 스크립트나 텍스트 패널 작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방문자 경로의 형성 등 유산 설명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아직 '해석'과 '설명' 두 용어 간 구분에 대하여 여전히 오해나 명확성이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여러 회의에서 오랫동안 논의했던 것처럼 ‘해석’이란 전문가, 대중 등 주체가 누구 인지와 상관 없이 유산의 중요성을 파악하려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즉, 해석은 불완전하거나 단편적인 과거 잔해의 의미에 대한 고찰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가 역사 연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는 지적 및(and/or) 감정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반해 ‘설명’은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공개한 진술이다. 유산에 대한 통찰에는 학술적 분석이나 유산이가 현대 정체성에 미치는 가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질문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유산에 대한 ‘쓰기’ 활동(여기서도 ‘쓰기’는 모든 가능한 설명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이 유산의 의미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고민과 글쓰기를 동시에 할 수는 있지만, ‘쓰기’ 활동에 앞서 설명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산 설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므로, 모든 설명 활동이 미리 결정된 해석적 구조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엄격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 단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석’이 모든 유산 이해관계자에 의한 의미 파악 과정이며, ‘설명’은 이러한 해석적 사고에 기반하여 대중에게 공개되는 진술이라는 점이다.

3. ‘유산 해석’에 대한 정의 초안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유산 설명’에 대한 정의를 두 세 문장으로 서술한다면?

유산 설명은 유산의 중요한 측면 또는 가치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 대중에게 공개된 진술로, 지속적인 해석 과정의 일부로 대중이 자유롭게 보고 이용할 수 있다. 유산 설명의 목적은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람과 유산 간 연결성과 문화적 그룹 또는 공동체 간 공유된 가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유산 설명은 텍스트 패널, 인터랙티브 앱 또는 구두로 표현되는 매체와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특정 관점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관점은 윤리적인 접근에 기반을 두어 유산과 관련된 OUV와 지역 공동체가 지닌 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산 가치가 반영되고 인정되도록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유산 해석과 설명의 정의와 개념 2023 - 이론연구 결과보고서

발행인 홍창남
총괄 이재순
기획 이수정, 강소정
원고 강소정, Neil Silberman, Manuel Gándara Vázquez, Neel Kamal Chapagain, Mario Santana Quintero, Jaeheon Choi, Sarah Court, Neil Silberman, Neel Kamal Chapagain
자문 Neil Silberman, Neel Kamal Chapagain
번역 이재인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재단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https://www.unesco-whipic.org/>
모이엔디자인
디자인·제작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증고개로14번길 12 SH빌딩 501호
I S B N 979-11-980698-3-2

©재단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문화재청, 2023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재단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홈페이지 (www.unesco-whipic.org)에서 PDF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